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한국어 명사 수식어의 영어
번역양상에 관한 연구



202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어영문학과

제 경 미

문학박사 학위논문

한국어 명사 수식어의 영어 번역양상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은일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어영문학과

제 경 미

제경미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27일



위 원 장	교육학박사	오 준 일	(인)
위 원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교육학박사	김 양 희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소 영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표 목차	iv
영문초록	v
I.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분석자료 및 방법	4
1.3 연구 구성	6
II. 이론적 배경	8
2.1 명사 수식어 분류	8
2.1.1 한국어 수식어 분류	8
2.1.1.1 관형사	9
2.1.1.2 명사 관형사형	10
2.1.1.3 서술어 관형사형	11
2.1.2 영어 수식어 분류	13
2.1.2.1 명사전 수식어	14
2.1.2.1.1 양화사	14
2.1.2.1.2 한정사	15
2.1.2.1.3 형용사	16
2.1.2.1.4 수식명사	17
2.1.2.2 명사후 수식어	18

2.1.2.2.1 관계절	18
2.1.2.2.2 전치사구	19
2.2 어순	20
2.2.1 한국어	20
2.2.2 영어	23
Ⅲ. 관형어 종류별 번역양상	26
3.1 관형사	27
3.1.1 지시 관형사	27
3.1.1.1 지시 관형사 ‘이’	28
3.1.1.2 지시 관형사 ‘그’	30
3.1.1.3 지시 관형사 ‘저’	34
3.1.2 성상 관형사	35
3.1.3 수 관형사	36
3.2 명사 관형사형	39
3.2.1 명사(N1의+N2)	40
3.2.2 명사+의(N1의+N2)	42
3.3 서술어 관형사형	45
3.3.1 형용사 관형사형	46
3.3.2 동사 관형사형	48
3.3.2.1 관계절	48
3.3.2.2 분사	50
3.3.2.3 전치사구	52
3.3.2.4 부정사	55
3.3.2.5 형용사	56

IV. 어순변화에 따른 번역양상	57
4.1 명사전 수식어	58
4.2 명사후 수식어	60
4.3 명사전·후 수식어	62
V. 추가 및 생략의 번역양상	64
5.1 추가	64
5.1.1 관사	64
5.1.2 소유격 대명사	66
5.1.3 지시사	66
5.1.4 양화사	67
5.2 생략	68
5.2.1 지시 관형사	69
5.2.2 수 관형사	70
5.2.3 명사 관형사형	70
5.2.4 형용사 관형사형	71
5.2.5 동사 관형사형	72
VI. 결론	74
분석자료 목록	76
참고문헌	77

표 목차

<표1> 세 소설에서 발견된 명사 수식어의 수	6
<표2> 관형어의 분류	13
<표3> 관형어의 종류와 빈도	26
<표4> 관형사의 종류와 빈도	27
<표5> 지시 관형사형의 종류와 빈도	28
<표6> 지시 관형사 ‘이’의 번역유형과 빈도	28
<표7> 지시 관형사 ‘그’의 번역유형과 빈도	30
<표8> 수 관형사의 번역유형과 빈도	36
<표9> 명사 관형사형의 종류와 빈도	39
<표10> ‘N1 _의 +N2’ 구조의 번역유형과 빈도	40
<표11> ‘N1 _의 +N2’ 구조의 번역유형과 빈도	42
<표12> 형용사 관형사형의 번역유형과 빈도	46
<표13> 동사 관형사형의 번역유형과 빈도	48
<표14> 영어 수식어의 위치와 빈도	57
<표15> 한정사의 종류와 빈도	64
<표16> 명사 수식어의 생략되는 유형과 빈도	69

A Study on English Translation Patterns of Korean Noun Modifiers

Kyung Mi J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atterns found in the translation of Korean noun modifiers into English.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usage of the progressive aspect in Korean and English in terms of semantics and discourse-pragmatics. In order to undertake this comparison, an analysis of a parallel corpus of Korean-to-English translated texts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s of this analysis, 941 noun modifiers after excluding duplicates were selected from three nove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Korean-English parallel corpus show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translations of Korean noun modifiers into English, as follows: i) The type of translation depends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noun modifier. In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when referring to content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the noun modifier is translated as “this”. When referring to content that has already been mentioned, it is translated as “the”, and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speaker and the head noun the referent is far, it is translated as “that”. ii) When multiple modifiers are used, pre-nominals are translated in a different order according to the strict word order and the adjective modifier word order in the noun phrase of Givón. Post-nominals showed a change in word order depending on the animacy of the head noun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noun indicating position, and changes in the translated word order also appeared when pre-nominals and

post-nominals started from modifiers close to the head noun. iii) Modifiers added in English translations even when not present in the original Korean text were found to be determiners, articles, possessive pronouns, demonstratives and quantifiers. When the modifier is applied to old information, a definite article is used, while when the modifier is applied to new information, an indefinite article is used. Possessive pronouns are used to emphasize the human agent, quantifiers are used to convey the exact meaning of the scene, and demonstratives are used to clarify specific objects. Modifiers are omitted in English to avoid repetition when they have previously been mentioned, are unnecessary, or can be understood from context.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로 다른 언어들끼리의 번역에 있어 원천언어(Source Language)의 표현이 담고 있는 동일한 의미나 메시지를 목표언어(Target Language)로 등가표현(equivalent)하는 것이 중요하다(Nida 1964; Catford 1965). 그런데 두 언어 체계가 다름으로 인하여 번역과정에서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고 문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단순히 원천 텍스트(source text)의 어휘와 문장을 일대일로 목표 텍스트(target text)의 어휘와 문장으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원천언어와 목표언어간의 문법적인 불일치(grammatical mismatch)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본 연구는 Givón(1984, 1993)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의 관점에서 명사 수식어를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어 문장에서 수식어(modifier)는 수의적인 성분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해 의미적인 보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 수식어는 하나의 문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정확한 의미를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한국어 수식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아래 예에서와 같이 명사 수식어가 항상 같은 형태로 번역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한국어 수식어 ‘그’가 (1)에서처럼 ‘that’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2)에서처럼 ‘this’로 번역되기도 한다.

- (1) a. 윤교수는 [그]¹⁾ 책을 낸 이후 십여 년 동안 새 책을 내지 않는다.

(신경숙 2010: 82)

- b. He had not published anything else since [that] book. (Russel (역) 2013: 67)

- (2) a. 가족들에게 그는 [그] 말이 역도산이 자신에게 전하고 간 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하 2006: 48)

- b. He insisted that [this] sentence was Rikidozan's last words. (Kim (역) 2010: 30)

위(1)의 예문에서는 명사 수식어인 ‘그’가 영어로 ‘that’으로 번역되었으나, (2)에서는 수식어 ‘그’가 ‘this’로 번역되었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수식어가 항상 핵명사(head noun) 앞에 위치하고 있으나 영어에서는 수식어가 핵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앞에 위치하기도 하고 뒤에 위치하기도 하며 전·후에 모두 위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식어가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날 때 수식어 어순의 변화를 살펴보자.

- (3) a. 비를 맞은 후 [싱싱하게 쪽쪽 뻗어 있는] [푸른] [토란]잎을 바라보며 꾸그리고 앉았다. (신경숙 2010: 37)

- b. I squatted down and looked at the [green] [taro] leaves [that had unfurled] after the rain. (Russel(역) 2013: 26)

위의 예문(3)에서는 한국어 수식어인 ‘싱싱하게 쪽쪽 뻗어 있는’, ‘푸른’, ‘토란’ 모두 핵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고 있으나 영어에서는 핵명사인 ‘leaves’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서 번역되고 있다.

셋째, 한국어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수식어가 영어로 번역시 나타나는 경우와 한국어에서 핵명사 앞에 위치한 명사 수식어가 영어로 번역시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1)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식어는 ‘[]’으로 핵명사는 ‘___’로 표시한다.

- (4) a. 남한의 대학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하던 [Ø] 대학 시절과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김영하 2006: 102)
- b. Nothing has changed since [their] college days when they clandestinely studied Kim Il Sung's Juche Idea. (Kim(역) 2010: 70)
- (5) a. 난폭한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한밤의] 골목이 고요하고 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강 2016: 54)
- b. Though there seemed no immediate threat of violence, the [Ø] alley was otherwise deserted. (White(역) 2017: 55)

위 (4)에서는 한국어 핵심사인 ‘대학 시절’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수식어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소유격 대명사인 ‘their’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의 (5)를 보면 한국어에서는 수식어인 ‘난폭한’이 핵심사 앞에 위치하고 있으나 영어로 번역될 때는 생략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수식(modification)’ 혹은 ‘수식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한국어에서 홍순성(1981)은 수식어의 유형과 특징과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김혜영(2011)은 명사 수식 구문과 관련하여 번역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 중 명사 수식 구문의 어순과 중의성을 고찰하였다. 민경모(2011)는 지시사 수식 명사구의 유형 및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홍용철(2012)은 한국어 명사 외곽 수식어들의 어순과 명사구 구조에 관한 연구 하였다. 영어에서는 Foley(1980)는 명사와 수식어 간 결합 강도를 ‘강하다(strong)/약하다(weak)’로 논의하였으며, Quirk, Greenbaum, Leech 와 Svartvik(1985)는 명사후 수식어 중에서 명시성(explicitness) 정도의 차이를 언어적, 상황적 문맥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Biber, Johansson, Leech, Conrad 와 Finegan(1999)에서는 명사후 수식어에 관한 분석 중 기술 문법적 분류에 의한 코퍼스 연구가 이루어졌다. Berk(1999)에서는 영어의 수식

관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생성문법적으로 접근하였으며, Takara(2012)에서는 명사의 수식구조에서 관계절과 명사를 수식하는 보충어의 수식을 받는 핵명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후로 Givón을 중심으로 기능문법 학자들의 수식어 위치와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수식어와 영어 수식어의 형태적, 문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의 수식어의 종류에 따른 번역 유형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문법 관점에서 한영 병렬언어자료를 분석하여 두 언어의 명사 수식어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연구(contrastive study)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 수식어가 기능문법(Givón 1984, 1993)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와 담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수식어가 영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며 수식어의 어순, 추가, 생략이 번역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조 연구를 통하여 두 언어의 명사 수식어에 대한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1.2 분석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반응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반응을 표현하는 표현적 의미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여러 문장 간의 관계에서 배경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용이한 소설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소설 텍스트의 경우 문학의 다른 갈래에 비해 언어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상황이나 각 사건에 대한 관점들의 다양함과 연결되어 있어서 소설텍스트를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그래서 번역시 구조 변경이 적게 일어날 것²⁾으로 예상되는 소설 텍스트를 분석 자료로 하여 한국어와 영어에서 명사 수식어의 번역유형을 찾아

보았다.

사용한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영 병렬언어자료(parallel corpus)는 신경숙(2010)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이하 신경숙 2010으로 약함)와 그 번역본인 *I'll be right there* (2014) (이하 Russel(역) 2014로 약함)과 김영하(2006)의 「빛의 제국」의 번역본 *Your republic is calling you*(2010) (이하 Kim(역) 2010으로 약함) 그리고 한강(2016)의 「흰」과 번역본 *The white book*(2017) (이하 White(역) 2017로 약함)이다. 세 소설 모두 베스트셀러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자 소설이며 그 중 번역본의 경우 비교적 검증된 번역가들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무엇보다 한국어 텍스트와 동등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쉬운 영어 표현과 짧은 문장이 많이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 구, 문장들은 번역의 과정에서 과감히 생략하거나 단순화 하였다. 무엇보다 독자의 공감을 방해하는 부분에서는 한국문화에 존재하는 최대한의 '등가(equivalence)'³⁾ 표현을 찾아 대체하였기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어 텍스트에서 주어나 목적어 앞에 오는 명사 수식어를 찾아보았다. 단편 소설 「흰」의 경우 명사 수식어가 전체 텍스트에서 287개가 발견 되었다. 나머지 두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빛의 제국」은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단편 소설 「흰」과 비슷한 비율로 맞추기 위하여 각각의 소설 텍스트에서 명사 수식어 300개씩 찾았다. 그리하여 세 소설에서 발견된 명사 수식어는 887개였다. 다음으로 명사 수식어가 나타난 문장에서 수식어가 여러 개 나타난 경우를 찾아보니 176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세 소설에서 발견된 전체 명사 수식어의 수는 1,063개였으며, 그 중 영어 텍스트에서 의역되어 번역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941개 명사 수식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세 소설에서 발견된

2) 소설은 표현적 텍스트로 원문 저자의 관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원문의 텍스트 구조를 번역문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최진실, 2010: 256).

3) Nida(1964)에 의하면 등가 관계는 출발어의 의미가 그대로 보존되고 구조면에서 동일한 형식을 사용해서 번역해야 한다고 하였다.

명사 수식어의 수를 정리한 표가 아래와 같다.

<표1> 세 소설에서 발견된 명사 수식어의 수

현	전화벨이 울리고 ⁴⁾	빛의 제국	합계
362	253	326	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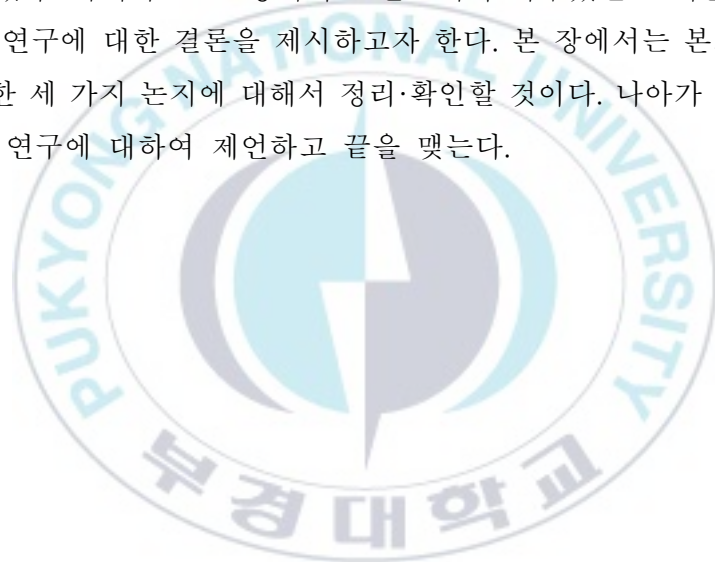
본 연구는 앞으로 두 언어에서 사용된 명사 수식어의 번역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의미적인 요인과 담화적인 요인으로 논의 할 것이다. Givón(1993)은 의미를 갖는 단어가 결합되어 명제(proposition)를 부호화한 것이 문장이며 한 문장 내부의 명제적 정보에 관한 분석을 ‘의미’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 독립된 명제의 범위를 초월하여 다명제(multi-proposition)적인 문맥적 틀을 형성한 경우의 정보 분석을 ‘담화’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즉, 의미란 한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담화는 문장이상의 언어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문장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문맥을 분석하는 것이다.

1.3 연구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한국어 수식어의 종류

4)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의 경우 명사 수식어가 의역되어 번역된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되어 수식어 수가 다른 두 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와 영어 수식어의 종류를 각각 소개하고 한국어와 영어 수식어의 어순에 대하여 살펴본다. 3, 4, 5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자료 분석의 결과 나타난 명사 수식어의 번역 유형과 요인을 다양한 예를 통하여 논의할 것이다. 먼저, 3장에서는 한영 병렬언어자료를 통해 명사 수식어인 관형어의 종류에 따른 영어번역 유형과 각 유형에 대한 기능 문법적 설명을 제시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수식어들의 어순 변화에 따른 영어 번역시 한국어와 차이점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한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어 번역시 추가되었거나, 한국어에서는 나타났으나 영어 번역시 생략된 수식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루었던 논지들을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루었던 주요한 세 가지 논지에 대해서 정리·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언하고 끝을 맺는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2.1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명사 수식어의 분류를 알아보고 2.2에서는 한국어에서와 영어에서의 수식어 어순을 살펴보겠다.⁵⁾

2.1 명사 수식어 분류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나타나는 명사 수식어의 분류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1.1 한국어 수식어 분류

한국어에서는 수식어와 관련하여 문장성분⁶⁾ 중 ‘관형어’가 있다. 서정수(1994)는 관형어란 명사구를 이루는 요소로 명사구의 머리(head) 앞에 놓이는 수식 요소를 통틀어 관형어라고 정의하였다. 이 때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중심이 되고 관형어는 그의 부속성분이 된다. 이러한 관형어

5) 명사 수식어의 생략과 추가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알아야 될 것이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명사 수식어의 종류와 어순만 살펴보겠다.

6) 문장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있다(남기삼 · 고영근(2014), 이익섭(2005))

의 구성성분의 범주를 설정하는데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인다.⁷⁾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명사 수식어인 관형어를 관형사, 명사 관형사형, 서술어 관형사형으로 정의하여 살펴보겠다.

2.1.1.1 관형사

통사적 기능으로 관형사는 문장에서 관형어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익섭(2005: 24)에서는 관형사를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어미나 조사를 취하지 않는 것, 즉 형태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였으며, 남기심·고영근(2014)에서는 관형사를 명사 앞에서 그 명사의 뜻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품사이며 명사 이외의 품사를 꾸미는 일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관형사는 기능상 명사 앞에서 명사만을 수식하며 형태상 불변어이고 동일 어형의 다른 품사와는 의미상 변별성을 지닌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관형사는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로 하위분류 된다. 이 분류는 최현배(1937, 1987)가 그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으로 현행 학교 문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상 관형사는 형용사에서, 지시 관형사는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에서, 수 관형사는 수사(numerals)에서 파생 또는 전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아래(6)의 밑줄 친 부분이 그러한 조건을 가진 관형사들이다.

7) 김봉모(1983), 김기복(1999), 고영근·남기심(2009) 등은 전통문법의 관점과 같이 관형어를 관형사나 체언의 관형화,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 그 외에 관형구, 절 등으로 관형어의 구성성분을 설정하였다. 서정수(1994)는 전통문법에의 수 관형사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수사의 관형사형으로 보았고 용언의 관형사형도 전통문법과 달리 따로 분류하지 않고 같이 절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왕문용·민현식(1993), 이관규(1999)등의 논의에서는 체언에 관형격조사 '-의'를 따로 분류함에 따라 관형어의 범주를 셋 또는 넷으로 구분하였다.

- (6) a. [이] 책이 그 책이다.
 b. 철수는 [흰]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샀다.
 c.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한다.

위 (6a)의 경우는 명사를 가리키면서 꾸미는 지시 관형사⁸⁾이며 (6b)는 꾸밈을 받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상 관형사⁹⁾ 그리고 (6c)는 단위성 의존명사나 분류사, 일반 명사 앞에서 사물의 수량을 표시하는 수 관형사이다.¹⁰⁾

2.1.1.2 명사 관형사형

명사 관형사형은 명사에 의한 관형어 구성으로 기본적인 양상은 관형격조사 ‘의’¹¹⁾가 실현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의’가 실현되는 구조(N1_의+N2)와 ‘의’가 생략되는 구조(N1_∅+N2)가 바로 그것이다.

8) 지시 관형사에는 고, 고까짓, 그, 그까짓, 그깟, 다른, 딴, 무슨, 뭘, 아무, 아무아무, 어느, 어떤, 여느, 오른, 윈, 요, 요까짓, 요런, 웬, 이, 이까짓, 이런 저, 저까짓, 저런, 조, 각, 귀, 당, 모, 모모한, 본, 현 등이 있다.

9) 성상 관형사는 ‘그림 매김씨’, ‘성질 관형사’, ‘실질 관형사’라도 표기 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성상 관형사에 해당하는 말들은 갓은, 고얀, 긴긴, 까짓, 단돈, 대모한, 딴, 맨, 먼먼, 몹쓸, 말간, 벌건, 벌의벌, 빨간, 빨건, 새, 새빨간, 애먼, 어인, 어쩐, 옛, 오랜, 웬, 한다한, 허튼, 현, 각, 고, 구, 근, 단, 동, 만, 매, 벌, 벌벌, 성, 소, 순, 신, 전, 주, 준 등이 있다.

10) 최현배(1961: 578-586), 남기십·고영근(2014: 79-84) 참조.

11) 많은 학자들이 관형격 조사 ‘-의’의 쓰임을 그의 뜻에 따라 소유, 소재, 소산, 비유, 대상, 소성, 소속, 소작, 명칭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분석하였다. 그 후 변형생성문법 도입의 영향으로 관형격조사 ‘-의’에 대한 연구도 차츰 통사적 기능의 측면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더 많은 학자들이 ‘-의’의 의미 유형을 분석하는 것보다 ‘-의’로 결합한 두 명사 사이의 의미관계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의’의 의미 유형이나 출현 여부 문제는 모두 두 명사 사이의 의미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김기복 1999: 39).

- (7) a. 나는 [철수의] 시를 좋아한다.
 b. 길에서 [철수 $\emptyset$] 동생을 보았다.

위에서 (7a)는 조사 ‘-의’가 실현된 구성이고 (7b)는 조사 ‘-의’가 생략된 구성이다. (7a)에서 ‘철수의 시’는 ‘철수 $\emptyset$ 시’로 ‘의’를 생략할 수 있고, (7b)의 ‘철수 $\emptyset$ 동생’은 ‘철수의 동생’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런데 관형격 생략 구성인 ‘N1 $\emptyset$ +N2’구성과 관형격 구성인 ‘N1의+N2’ 구성 사이에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8) a. [중국 $\emptyset$] 사람
 b. [중국의] 사람 (남기심 2005: 135)

(8a) ‘중국 $\emptyset$ 사람’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혈통의 사람’을 일컫는데 (8b) ‘중국의 사람’은 (8a)의 의미는 물론 ‘중국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 모두를 일컬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중국 $\emptyset$ 사람’은 관형격 조사 ‘-의’ 생략구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명사 수식 구성인 ‘N1+N2’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명사 관형사형의 구성은 ‘N1의+N2’ 유형, ‘N1 $\emptyset$ +N2’ 유형, ‘N1+N2’ 유형의 세 가지 양상으로 보아야 한다. ‘N1 $\emptyset$ +N2’ 유형은 ‘N1의+N2’ 유형으로 환원했을 때 의미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8a)와 (8b)의 경우에는 의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1.1.3 서술어 관형사형

서술어 관형사형은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 -는, -르, -던’ 등이 붙어 핵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가리킨다. 서술어에 의한 관형사형은 용언인 동사나 형용사가 단독으로 관형사형이 되기도 하지만 서술어의 형태

로 형성되어 핵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9) a. 아파트에 [큰] 불이 났다.
b. 그녀는 [반짝이는] 신발을 바라보았다.
c. 어머니는 [밥을 먹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9a)는 형용사 ‘큰’이 핵명사 ‘불’을 수식하여 한정하고 있고 (9b)는 동사인 ‘반짝이는’이 핵명사 ‘신발’을 수식하고 있으며 (9c)는 서술절 ‘밥을 먹는’이 관형사형이 되어 핵명사 ‘아들’을 꾸미고 있다. 즉 (9)의 밑줄 친 말들은 형용사나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ㄷ, -던’ 등이 결합되어 관형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관형형 어미인 ‘-(으)ㄴ, -는, -(으)ㄷ, -던’은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 뒤에 붙어 관형화를 시키고 핵명사를 수식하는 통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으)ㄴ’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현재 진행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동사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 특성을 다 갖고 있는 ‘있다/없다’도 동사일 경우 ‘-는’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관형형 어미 ‘-던’은 과거의 진행 중의 동작이 미완료 되거나 과거 동작의 일상성 등을 나타내면서 회상의 기능을 하는 관형형 어미이다. 셋째, ‘-(으)ㄴ’은 이미 발생하고 확정된 대상을 수식할 경우에 쓰이는 관형사형 어미인 반면 ‘-(으)ㄷ’은 미래나 미확정된 일을 의미할 때 쓰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으)ㄴ’은 실현성, ‘(으)ㄷ’은 미실현성을 띠고 있는 관형형어미이다. 여기서 ‘-(으)ㄷ’은 미래에 대한 추측, 의지나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한 미확정성을 의미하며 관형어로 구성한다(이익섭, 2005).

지금까지 살펴본 명사 수식어인 관형어를 분류하여 정리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2> 관형어의 분류

관형사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
명사 관형사형	N1 _의 +N2, N1 _의 +N2
서술어 관형사형	형용사 관형사형, 동사 관형사형

2.1.2 영어 수식어 분류

Givón(1993)에 의하면 수식어가 명사 앞에 위치하게 되면 이를 명사전(pre-nominal) 수식어라 하고, 핵명사 뒤에 위치하는 다른 명사구들을 명사후(post-nominal) 수식어라 명명한다. 명사전 수식어에는 양화사(quantifier), 한정사(determiner), 형용사구(adjective phrase), 또는 수식명사(modifying noun)가 있으며, 명사후 수식어에는 관계절(relative clause), 전치사구(preposition phrase)¹²⁾가 있다.

(10) [all the big] balls

(11) the boy [I met yesterday]

위의 예문 (10)에서 핵명사 ‘balls’ 앞에 위치하는 수식어를 명사전 수식어라 하며, (11)에서 ‘the boy’ 뒤에 위치하는 수식어를 명사후 수식어라 한다. 이러한 수식어들은 명사 앞에 오든, 명사 뒤에 오든 엄격하게 서로 상대적인 순서가 매겨진다.

다음 장에서는 수식어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수식어들의 종류와 그 특징을 알아보자.

12) Givón(1993)에서는 없었지만 Quirk et al.(1985)에서는 전치사구를 가장 흔한 후행수식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전치사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2.1.2.1 명사전 수식어

영어에서는 명사구내 요소들의 아주 엄격한 순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명사 앞에만 오는 수식어들은 명사전 수식어라하며, 명사전 수식어에는 양화사, 한정사, 형용사, 수식명사가 있다.

2.1.2.1.1 양화사

양화사는 수, 양, 크기 및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수량형용사 (quantitative adjective)의 범주에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어 수식어에서는 수 관형사가 이에 해당된다. Declerck(1990)에 따르면, 양화사는 'all, every, each, any, some, many, much, (a) few, (a) little' 등이 있다. 양화사는 일반 형용사와 달리 관사도 없이 다른 수식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일차어 (primaries)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항상 한정사보다 앞에 놓이고 서술어 형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Givón(1993)에 의하면 양화사는 영어에 명사 앞의 두 개의 구분된 위치에 나타난다. 첫 번째는 부분을 나타내는 한정 양화사 (partitive definite quantifier)이며, 두 번째는 비한정적 양화사-한정사 (indefinite quantifier-determiner)로 나타난다. 부분 양화사는 소유의 'of'와 한정적 한정사 앞에 오는 반면, 비한정적 양화사는 'of'와도 한정사와도 함께 쓸 수 없다. 이러한 양화사는 명사구에서 한정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비한정 양화사들 중의 일부는 비한정 한정사(indefinite determiner)로서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한정적 양화사 위주로 논의할 예정이며, 아래 (12)는 비한정적 양화사의 예이다.

(12) a. some women

- b. one man
- c. another day
- d. only men
- e. all soldiers
- f. many flowers
- g. every person
- h. little luck
- i. a little help
- j. any suggestion
- k. no response

2.1.2.1.2 한정사

한정사¹³⁾는 정관사 ‘the’와 지시사 ‘this’, ‘that’, ‘these’, ‘those’와 부정관사 ‘a(n)’, ‘some’ 그리고 비지시적 관사 ‘any’와 ‘no’를 포함하여 소유격 수식어 역시 한정사로 기능을 한다(Givón 1993). 한정사의 다양한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3) a. 정관사 the woman
 b. 지시사 that horse
 this child
 c. 부정관사 a girl

13) 양용준((2013)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영어의 한정사에 해당되는 용어가 있으며 이를 관형사라고 한다. 한정사란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동명사, 부정사 등에 해당되는 표현) 앞에 놓여 그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를 꾸며주는 말이다. 뒤에 오는 명사의 뜻을 더 자세히 밝히고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데, 국어문법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품사이기도 하다.

- d. 비지시적 관사 any milk
no trouble
- e. 소유격 한정사 my boy
John's work
the woman's son

이 모든 한정사들이 같은 통사적 분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정사 들 중에서 하나만이 한정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모두 비문에 해당된다.

- (14) a. *the my house
b. *my some children
c. *this her room
d. *no a solution

2.1.2.1.3 형용사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며 대상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들로 이루어진다. 동사는 대부분 타동성을 갖는 반면, 형용사들은 대부분 자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worth', 'like'와 같은 몇몇의 형용사들만 타동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형용사는 기능적으로는 명사의 앞과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연결동사의 보어로 나타나며, 비교급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의존적인 특성을 갖는다(Huddleston 와 Pullum 2002). 그들은 명사 수식에 중점을 두고 형용사의 전형적 쓰임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15) a. unhappy people
b. They are happy.
c. someone, nobody

형용사는 (15a)와 같이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한정적 쓰임과 (15b)처럼 연결 동사의 보어로 사용되는 술어적 쓰임 그리고 (15c)의 ‘someone’, ‘nobody’와 같은 합성 한정사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수식의 쓰임의 세 가지로 나뉜다.

Dixon(2005)에 따르면 형용사는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범주이면서, 명사나 동사와 구별되며, 특정한 의미들을 나타내며, 기능적으로는 명사구 내에서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거나, 연결동사의 보어로서 술어의 핵명사로 사용된다.

2.1.2.1.4 수식명사

핵명사 앞에 오는 마지막 수식어 자리가 수식명사이다. 영어에서는 한 개의 명사 또는 여러 개의 명사가 핵 명사를 수식하는데 사용된다. 그런 구문이 종종 명사합성어를 만들어낸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식어와 핵명사가 융합되거나 동일 어휘화되어 새로운 어휘명사를 형성한다. 명사와 그것을 수식하는 수식명사는 아래에서와 같은 단일 명사복합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융합될 수 있다.

- (16) a. bird-house (새가 사는 집)
b. shoe-polish (구두약)
c. riding-horse (사람이 타는 말)
d. wheat-field (밀을 키우는 들판)

- e. apple-core (사과의 속)
- f. mail-man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2.1.2.2 명사후 수식어

영어에서 명사 뒤에 오는 수식어들은 크기가 크고 한 단어라기보다는 구이다. 게다가 그 수식어들은 완전한 동사절과 체계적인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관계를 지니는 경향이 있다. 그 관계의 통사적 측면은 관계절에서 가장 명확하며 전치사구의 경우 의미적이다. 명사후 수식을 허용하지 않고 명사전 수식만을 허용하는 한국어 서술어 관형사형과 영어 관계절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한영 번역과정에서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2.1.2.2.1 관계절

관계절은 명사 수식어를 명사구 안에 포함시키는 종속절(subordinate clauses)이면서 기능적으로는 지시적 확인(referential identification)이라는 문법의 일부가 된다. 관계절은 명사후 수식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관계절은 제한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으로 나뉘는데 제한적 용법은 전형적으로 명사구를 수식하는 구조인 반면, 비제한적 용법은 등위나 병렬구조의 의미 속성을 갖기도 하고 때때로 부사적 종속(adverbial subordination)과 의미적 유사성을 갖기도 한다(Quirk, et al. 1985).

- (17) a. The book [that John read] is very interesting. (제한적)
- b. The book, [which John read], is very interesting. (비제한적)

위의 (17a)의 관계절은 필수정보로 선행사 the book을 제한하고 있으나 (17b)의 관계절은 부가정보로 독립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주어 관계절의 경우 본동사 혹은 조동사가 ‘be’ 일 때, 그 ‘be’는 생략되어 나타날 수 있다. 관계절은 관계대명사나 종속사가 없이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절 동사가 없이 나타나게 된다. 제한적 관계절에서만 발견되는 유형으로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Givón 1993).

- (18) a. The fiddler [who is on the roof]
- b. The fiddler [on the roof]
- c. The woman [who is standing near the bar]
- d. The woman [standing near the bar]
- e. Fish [that are caught after October 15th]
- f. Fish [caught after October 15th]

(18b)는 처격 본동사 ‘be’ 생략된 경우이며 (18d)는 진행형 조동사 ‘be’ 생략된 경우로 현재분사(present participle)가 형태가 되며 (18f)의 경우는 수동의 조동사 ‘be’가 생략과 함께 과거분사(past participle)가 된다.

2.1.2.2.2 전치사구

이기동(2011)에 의하면 전치사와 명사구가 함께 쓰이면 전치사구가 되며 전치사구는 문장 안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쓰인다. 한 가지는 동사구나 형용사구를 수식하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역할이다.

Curme(1947)은 전치사란 “명사 또는 대명사를 동사, 형용사, 다른 명사 또는 대명사와 연결하고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정의한다.

전치사는 명사나 명사상당어구 또는 전치사구(PP)를 형성하면서 문장 내에서 수식어 기능을 수행한다.

- (19) a. the girl [with dark hair]
b. the spoon [on the table]

(19)에서 ‘with’는 “the girl”과 “dark hair”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각 전치사는 후행하는 명사구와 함께 전치사구를 형성한다. 각각의 전치사구는 앞의 핵명사에 대하여 수식어구 역할을 하므로 보충어가 아니라 부가어라고 할 수 있다.

2.2 어순

한국어는 수식어가 핵명사 앞에 위치하고 있으나 영어에서는 앞이나 뒤 또는 앞·뒤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수식어가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 수식어들 간의 어순의 변화가 나타난다.

2.2.1 한국어

한국어 명사 수식어의 특성은 여러 개의 수식어가 핵명사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문장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명사 수식어가 여럿이 겹쳐 쓰일 때는 각 수식어 사이에 일정한 순서가 있기에 그 순서가 바뀌면 어색하거나 비문이 된다. 남기심·고영근(2014)에 의하면 관형사를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로 나누고, 지시관형사는 수 관형사와 성상 관형사에 앞서는 통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세 종류의 관형사가 함께 배열될 때는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 성상 관형사’의 순서가 된다.

- (20) a. [이] [현] 집
b. [저] [모든] 군중
c. [저] [모든] [새] 집

명사 관형사형들 간의 어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a. [전국] [노래] 자랑
b. [현재의] [나의] 생활
b. [나의] [현재의] 생활

(20a)의 수식어들은 ‘-의’가 필요 없는 구조라 수식어와 핵명사 사이나 수식어끼리도 모두 의미관계가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21a)처럼 핵명사 ‘자랑’이 먼저 수식어 ‘노래’의 수식을 받고 하나의 명사구를 구성한 다음 다시 앞의 수식어 ‘전국’과 겹침 구조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수식어의 자리를 도치하면 비문이 될 수도 있다. (21b)의 예문처럼 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쓰인 경우 수식어인 ‘현재의’와 ‘나의’가 각각 핵명사인 ‘생활’을 수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수식어들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도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다음으로 서술어에 의한 관형사형들 간의 어순을 살펴보자.

- (22) a. [미래를 이끌어갈] [자라는] 청소년들
b. *[자라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 (23) a. [예쁜] [빨간] 꽃

b. [예뻐던] [빨간] 꽃

일반적으로 동사는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핵명사가 동시에 두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22)와 같이 두 동사의 시제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다. 시제가 다른 두 동사는 선행 동사가 후행 동사와 핵명사로 형성된 명사구를 수식하여 배열된다. (23)의 경우처럼 두 형용사가 핵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수식어들 사이에 휴지를 두거나 시제를 다르게 하여 배열한다.

지금까지는 동일 범주의 수식어들의 어순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비동일 범주의 수식어들의 어순 보면 관형격조사 '-의'를 붙이지 않는 명사가 수식어가 될 경우에는 항상 핵명사 바로 앞에 위치를 한다. 반면에 다른 수식어들은 배열 순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단, 명사 관형사형은 핵명사의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핵명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배열 순서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 (24) a. [저] [우주의] [멋진] 행성
b. [저] [멋진] [우주의] 행성
c. [우주의] [저] [멋진] 행성
d. [우주의] [멋진] [저] 행성

명사를 제외한 다른 수식어들은 배열 순서를 변화해도 문법적이다.¹⁴⁾

14) 김봉모(1978)는 '명사(의) + 서술어 관형사형 + 관형사(지시 + 수 + 성상) + 명사 + 핵명사'의 순서를 한국어 수식어 겹침 구조의 기본 어순으로 설정하였지만 이 어순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2.2 영어

Givón(1993)은 수식어들끼리의 상대적 순서를 명시하는 규칙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25) 명사구 내의 엄격한 어순:

$$\text{NP} = [\text{QUANT}][\text{DET}][\text{AP}][\text{N}]\text{N}[\text{PL}][\text{REL} \quad]$$

POSS-NP
N-COMP

명사후 수식어 중에는 의미상의 차이는 없으나 명시성(explicitness)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26) a. the girl [who was standing in the corner]
b. the girl [standing in the corner]
c. the girl [in the corner]

위의 예문들을 보면 모두 ‘모퉁이에 있는 소녀’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지만, 명확한 행위가 표현되지 않는 (26c)의 전치사구보다는 (26b)의 현재 분사 형태가 더 명시적이다. 그리고 정형절인 관계절로 표현된 (26a)는 명확한 시체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나 과거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분사형태인 (26b)보다는 더 명시적이다. Quirk et al.(1985)에 의하면 명사구에서의 이러한 명시성 축소(reduction)는 언어적, 상황적 문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Quirk et al.(1972)에서는 형용사와 같은 수식어는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를 「일반적인 형용사 + 나이 + 색 + 분사 + 출처/양식 + 명사 파생 형용사」 또는 「판단/주관 + 크기+ 모양 형용사」와 같은 상대적

순서(relative sequence)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Quirk et al.에서 판단이나 주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크기와 관련된 형용사 앞에 오고,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보다 앞서 나타난다.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사이에서는 높이를 나타내는 것은 둘레를 나타내는 것보다 앞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리듬은 선호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긴 말 앞에 좀 더 짧은 말이 오고, 드문 말 앞에 일상적인 말이 오며, 비제한적인 말 앞에 제한적인 말이 온다. Quirk et al.(1972)의 형용사 어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형용사 어순이 나타난다.

- (27) a. the hectic social life
(general-denominal)
b. the extravagant London social life
(general-noun-denominal)
c. a crumbling church tower
(participle-noun)
d. a grey crumbling Gothic church tower
(color-participle-provenance-noun)
e. some intricate old interlocking Chinese designs
(general-age-participle-provenance)
f. a small green carved jade idol
(general-color-participle-material)
g. his heavy new moral responsibilities
(general-age-denominal)

(Quirk et al. 1972: 925)

Crystal(1982: 139) 은 형용사의 어순을 「크기 + 나이+ 색+ 국적 + 재료」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사이의 상대적 순서로 보았다. 반면, Pyles 와

Algeo(1970: 165)는 서로 다른 종류의 형용사들은 같은 명사를 수식할 때 ‘all the many beautiful French girls’와 같이 고정된 어순(fixed order)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들 형용사들의 순서는 바꿀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은 서로 다른 수식어로 보았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보았다.¹⁵⁾ 다음 장에서는 한영 병렬언어자료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명사 수식어들의 종류별 번역양상을 의미적인 관점과 담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15) 수식어가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식어의 종류와 어순만 살펴보겠다.

Ⅲ. 관형어 종류별 번역양상

이 장에서는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명사 수식어인 관형어 종류별 번역 유형 및 빈도에 대하여 의미론적 요인과 및 담화적인 요인으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명사 수식어는 1,063개 중에서 의역된¹⁶⁾ 126개를 제외한 937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명사 수식어 937개를 관형어 종류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 아래 <표3>과 같다.

<표3> 관형어의 종류와 빈도

관형사	명사 관형사형	서술어 관형사형	합계
158(16.9%)	278(29.7%)	501(53.4%)	937(100%)

관형어 중에서 서술어 관형사형이 501개(5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명사 관형사형이 278개(29.7%) 그리고 관형사가 158개(16.9%) 나타났다. 아래에서 관형어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번역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16) 다음은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명사 수식어가 의역된 경우이다.

- i) a. 끝끝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모진] 일을 오래 당했던가보다.(한강 2016: 62)
- b. Poor wretch, she muttered, clicking her tongue, it must have suffered a lot.(White(역) 2017: 65)

3.1 관형사

한국어 관형사에서는 지시 관형사와 성상 관형사 그리고 수 관형사가 있다. 다음 <표4>는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관형사의 종류와 그 빈도이다.

<표4> 관형사의 종류와 빈도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	합계
110(69.6%)	3(1.9%)	45(28.5%)	158(100%)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지시 관형사가 110개(69.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수 관형사가 45개(28.5%) 그리고 성상 관형사가 3개(1.9%) 순으로 발견되었다. 지시 관형사의 번역 유형부터 살펴보자.

3.1.1 지시 관형사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관사의 사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핵명사를 지시하는 단서로 지시 관형사 ‘이, 그, 저’를 사용한다. 이러한 지시 관형사는 핵명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핵명사 앞에 명사 수식어로 사용되어진다.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한 지시 관형사의 종류와 빈도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지시 관형사의 종류와 빈도

이	그	저	합계
31(28.2%)	78(70.9%)	1(0.9%)	110(100%)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지시 관형사 ‘그’가 78개(70.9%)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31개(28.2%)가 ‘저’는 1개(0.9%)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 관형사 ‘이, 그, 저’의 의미적인 관점과 담화적인 관점에서 영어 번역 유형을 살펴보자.

3.1.1.1 지시 관형사 ‘이’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지시 관형사 ‘이’의 번역유형과 빈도를 아래 <표6>을 통해 살펴보자.

<표6> 지시 관형사 ‘이’의 번역유형과 빈도

this	the	생략 ¹⁷⁾	합계
21(67.7%)	8(25.8%)	2(6.5%)	31(100%)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지시 관형사 중 ‘이’는 31개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 ‘this’로 21개(67.7%) 번역되어 나타났으며 정관사 ‘the’로 8개(25.8%)가 발견되었다.

17) 명사 수식어가 생략되어 번역된 경우는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지시 관형사 ‘이’가 ‘this’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28) a. 일 년 만에 [이] 도시로 다시 돌아오면서 나는 이 도시를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 그러기 위해 이 도시 구석구석을 내 발로 걸어 다녀야겠다고. (신경숙 2010: 48)

b. Having returned after a year to [this] city, I decided it was time I got to know it. [...] In order to do that, I would explore every corner of it on foot. (Russel(역) 2014: 37)

예문(28)에서 화자는 일 년 만에 돌아온 도시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고 구석구석 걸어 다녀야겠다고 결심 할 정도로 혁명사인 ‘도시’에 대한 심리적 애정과 관심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가 ‘도시’에 대하여 관심의 정도가 크고,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지시 관형사 ‘이’를 사용하였다. 반면 영어에서는 앞으로 소개할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할 때는 지시사 ‘this’를 사용하여 나타낸다고 하였다(Givón 1983). 그리하여 (28b)에서는 화자는 도시에 대하여 청자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지시 관형사 ‘이’를 ‘this’로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둘째, 지시 관형사 ‘이’가 정관사 ‘the’로 번역된 예를 살펴보자.

(29) a. 그러기 위해 이 도시 구석구석을 내 발로 걸어 다녀야겠다고. [이] 도시를 알기 위해 걷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신경숙 2010: 86)

b. In order to do that, I would explore every corner of it on foot. I made the right decision to learn about [the] city by walking around it. (Russel(역) 2014: 71)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리적 원근거리를 나타낼 때 지시대상이 화자의 심리적 영역에 가깝고 친근감이 클수록 지시 관형사 ‘이’를 사용한다. 위의 (29)에서도 도시에 대해 알기 위해 걷기로 했다는 것을 보아 지시 대상인 ‘도시’는 화

자와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친밀도가 크기 때문에 핵명사 ‘도시’ 앞에 지시 관형사 ‘이’가 위치하였다. 영어에서는 화자가 언급한 단어의 잠재적인 의미를 청자가 이전에 획득한 지식을 통해 알 수 있음을 의미 할 때 정관사 ‘the’를 사용한다(Christophersen 1939). 그리하여 화자는 핵명사인 ‘도시’에 대하여 이미 언급하여 청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시 관형사 ‘이’가 영어에서 ‘the’로 번역된다.

한국어에서는 화자가 지시대상에 대하여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게 느끼거나 친밀도가 클 때는 지시 관형사 ‘이’를 사용하였으나 영어에서는 앞으로 이야기 할 대상에 대해서는 ‘this’로, 이미 언급된 대상으로 청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는 정관사 ‘the’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3.1.1.2 지시 관형사 ‘그’

다음 <표7>은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지시 관형사 ‘그’의 영어 번역유형과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7> 지시 관형사 ‘그’의 번역유형과 빈도

that	the	this	a	생략	합계
22(28.3%)	32(41%)	7(9%)	2(2.5%)	15(19.2%)	78(110%)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지시 관형사 ‘그’는 78개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 ‘the’로 번역되는 경우가 32개(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that’이 22개(28.3%)개, ‘this’가 7개(9%)개, ‘a’가 2개(2.5%)개로 나타났다. 지시 관형사

‘그’의 영어번역 유형을 기능 문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첫째, 지시 관형사 ‘그’가 ‘that’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30) a. 그는 검은 카디건을 입은 여선생에게 물었다. “소지현 선생님 좀 불러 왔는데요.” [그] 여선생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김영하 2006: 56)

b. “I’m here to see Ms. So Ji-hyon,” Ki-yong announces to a teacher wearing a black cardigan. Before [that] teacher can respond, someone says behind him. (Kim(역) 2010: 36)

(30)을 보면 지시 관형사 ‘그’가 영어에서 ‘that’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청자에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는 지시 관형사 ‘그’를 사용¹⁸⁾하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심리적 접근성에서 보면 화자와 지시체나 청자 사이에 관련성의 정도나 관심의 정도가 보다 작으면 ‘this’ 대신 ‘that’으로 지시한다 (Lakoff 1974). 위(30b)에서 화자는 핵명사인 ‘선생님’을 처음 보았으며 선생님과 화자와의 인지적 연대감이 떨어짐을 나타내기 위하여 ‘that’으로 번역하였다. 다시 말해, 심리적 거리에서, 화자의 심리적 상태가 지시체인 핵명사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나타낼 때는 ‘that’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둘째, 지시 관형사 ‘그’가 정관사 ‘the’로 번역된 경우이다.

(31) a. 기다리면 보이지 않는 안쪽에서 엄마가 복용할 일주일 분의 약이 담긴 바구니가 내 쪽으로 밀려나왔다. [그] 약들을 우체국에 가서 엄마에게 부치는 일을 수요일 마다 반복했다. (신경숙 2010: 28)

b. After a brief wait, a basket with a week’s worth of my mother’s medication was pushed back to me. I repeated this trip to [the]

18) 초기의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는 ‘이, 그, 저’를 거리에 따라 구분하여 삼원대립 체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으며, 최현배(1937, 1987), 장경희(1980), 임홍빈(1987)에서는 ‘이’를 화자에게 가까운 것, ‘그’를 청자에게 가까운 것, ‘저’를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pharmacy every Wednesday to purchase my mother's pills and mail them to her. (Russel(역) 2014: 18)

화자가 대상을 처음 언급하는 경우는 부정관사 'a'를 사용하지만 화자가 이미 언급된 것을 지칭하거나 주어진 상황에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때 정관사 'the'를 사용한다(Jespersen 1993). 위(31)의 경우 핵명사인 '약'이 앞의 문장에서도 이미 '엄마가 복용할 약'이라고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 지시 관형사인 '그'가 정관사 'the'로 번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앞선 문장에서는 '약'이 'medication'으로 번역되었으나 다음 문장에서는 'pharmacy'로 번역된 것은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시 관형사 '그'가 'this'로 번역된 예이다.

- (32) a. 가족들에게 그는 [그] 말이 역도산이 자신에게 전하고 간 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일본어로 말을 한 것은 해방 이후 십팔 년 만이었으니 가족들이 놀란 것도 당연했다. (김영하 2006: 48)
- b. He insisted that [this] sentence was Rikidozan's last words. His family was shocked, and rightly so, since it was the first time he'd spoken Japanese in the eighteen years since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Kim(역) 2010: 30)

위(32)에서 핵명사인 '말' 앞에 유언이라는 특정한 사물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시 관형사 '그'를 사용하였으며 영어에서는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기 위하여 'this'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즉, 화자는 그가 내뱉은 '말'이 역도산이 자신에게 전하는 유언이면서 십팔 년 만에 사용한 일본어라는 것을 청자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this'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시 관형사 '그'가 부정관사 'a'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33) a. 그러나 공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고위 경찰 관료의 얼굴에 오줌을 내

잡긴 행위가 가져다주는 원초적 쾌감마저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 쾌감은 실로 연극적인 것이었다. (김영하 2006: 66)

- b. But She couldn't deny the primal pleasure she experienced from pissing on the face of a high-level police official, the ultimate symbol of the state. She felt [a] theatrical thrill. (Kim(역) 2010: 44)

(34) a. 소설가 박태원은 첫딸이 태어났을 때 [그] 창문을 보고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한강 2016: 47)

- b. The writer Park T'ae-won said that just such [a] window had drawn his gaze when his first daughter was born, hence the name he coined for her. (White(역) 2017: 45)

지시 관형사 '그'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청자가 이전 문맥에서 말화한 지시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33)에서는 이전 문맥에서 언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시 관형사 '그'를 사용하였으며 (34)에서는 지시 관형사 '그'를 사용하여 '창문'이라는 특정한 사물을 나타내고 있다. 영어에서는 (33b)를 보면 지시체인 핵명사 '쾌감'은 청자가 이해하는 정도가 비 친숙한 것¹⁹⁾으로 보아 단수 보통명사인 'thrill' 앞에 부정관사 'a'를 사용하였으며 (34b)에서는 부정관사 'a'를 'such'가 함께 쓰여 'such a' 유형으로 번역하였다. 즉, 지시체인 '창문'을 그런 유형의 창문으로 보아 'such a'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19) Jespersen(1933)에서 관사를 친숙의 3단계 이론을 이용하여 관사의 사용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제1단계인 완벽한 비 친숙의 단계(complete unfamiliarity)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의 관사와 명사의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 a. 부정관사 + 단수 보통명사 (e.g., an apple)
- b. 무관사 + 불가산 명사 (e.g., milk)
- c. 무관사 + 복수 보통명사 (e.g., apples)

3.1.1.3 지시 관형사 ‘저’

지시 관형사 ‘저’는 담화에서는 빈번하게 등장하나 텍스트 문장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며,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도 1개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지시 관형사 ‘저’가 영어로 ‘those’로 번역된 경우는 1개이며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35) a. 그렇다 해도 [저] 불빛들은 여전히 명료한 정적과 고립 속에서 하얗게 얼어붙어 있을 것이다. (한강 2016: 83)

b. Yet [those] lights will be frozen white as ever, in the clarity of their stillness, in their isolation. (White(역) 2017: 95)

위의 (35)에서는 지시 관형사 ‘저’가 영어에서는 ‘those’로 번역되었다. 지시 관형사 ‘저’의 경우 화자와 청자 둘 다의 영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시체에 대해 친밀도가 낮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예문 (35)를 보면 화자는 지시체인 핵명사 ‘불빛들’에 대하여 정적과 고립 속에서 얼어붙어 있다는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물리적,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수식어로 지시 관형사 ‘저’를 사용하였으며, 핵명사인 ‘불빛들’은 복수의 의미이기에 ‘that’가 아닌 ‘those’로 번역되었다. ‘that’ 역시 화자와 지시체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사용하기 때문에 (35b)와 같이 번역되었다. 한국어에서는 화자와 지시체인 핵명사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지시 관형사 ‘그’나 ‘저’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영어에서는 ‘that’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시 관형사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한국어 지시 관형사는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그’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와 ‘저’ 순으로 발견되었다. 한국어에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친밀도가 클 경우부터 지시 관형사 ‘이’, ‘그’, ‘저’ 순으로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 반면 영어에서는 앞으로 소개할

내용을 설명 할 때는 ‘this’로, 이미 언급된 내용을 나타낼 때는 ‘the’로, 화자와 지시체인 핵명사의 거리가 먼 경우 ‘that’으로 번역되었다.

3.1.2 성상 관형사

성상 관형사는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관형사 전체 158개 중에서 3개 (1.9%) 발견되었으며 모두 형용사로 번역되었다.

- (36) a. 간혹 어떤 기둥이나 벽들의 아랫부분이 살아남았을 경우에는, 그 옆과 위로 [새] 기둥과 [새] 벽이 연결되어 있다. (한강 2016: 28-29)
b. Where a pillar or perhaps the lower part of a wall happens to have survived, it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new] structure. (White(역) 2017: 26)

(36)에서 한국어 성상 관형사인 ‘새’는 형태의 변함이 없이 핵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며 영어에선 형용사로 번역되었다. 아래 (37)은 형용사 관형사형의 번역 예이다.

- (37) a. 그러나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한동안 아침마다 주변이 [새로운] 국화꽃을 갖다놓더니 그마저도 곧 중단되었다. (김영하 2006: 31)
b. For a while the class monitor brought a [new] flower every morning, but the ritual eventually petered out. (Kim(역) 2010: 17)

(37)의 경우 형용사 관형사형인 ‘새로운’이 관형격 조사와 함께 사용하여 형태의 변화²⁰⁾가 있으며 영어에서는 형용사로 번역되었다. (36)과 (37)의 두 예문

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성상 관형사와 형용사 관형사형 두 수식어가 서로 다른 형태이나 영어에서는 두 수식어 모두 형용사 ‘new’로 같은 형태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수식어가 영어에서는 같은 형태의 수식어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1.3 수 관형사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수 관형사²¹⁾가 영어에서의 번역시 유형과 빈도를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자.

<표8> 수 관형사의 번역유형과 빈도

수사	분류사의	부정관사 ‘a’	서수 ²²⁾	생략	합계
11 (24.4%)	7 (15.6%)	8 (17.8%)	9 (20%)	10 (22.2%)	45 (100%)

수 관형사는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45개 나타났으며, 수사로 번역되는 경우

20) 어간 ‘새롭-’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 ‘새롭-’이 ‘새로우-’로 바뀌어 이루어진 말이다.

21) 수사는 양화사의 하위부류로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품사로 정의되고 있다. 수사를 대명사에 편입시키는 문법학자도 없지 않지만 대명사의 경우 같은 대상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되지만 수사는 그렇지 않다. 또한, 기능면에 있어서도 수사는 한 문장의 다른 성분과 관련시킬 수 있지만 대명사는 그렇지 않다(남기심 · 고영근 2014).

22) 수사의 종류 중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대상의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ordinals)는 모두 영어로 ‘first, second, third...’로 번역되어 본 연구에서 생략하였다.

가 11개(24.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서수로 9개(20%), 부정관사 ‘a’로 8개(17.8%), ‘수 관형사 + 분류사’의 구조가 7개(15.6%) 순으로 발견되었다. 아래 예를 통해 수 관형사의 번역 유형들을 살펴보자.

먼저, 수 관형사가 영어로 수사로 번역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38) a. 키도 비슷하고 헤어스타일도 닮은 [두] 소녀는 학교를 향해 한들한들 걸어가기 시작했다. (김영하 2006: 17)

b. The [two] girls, who are the same height and have identical hairstyles, start toward school. (Kim(역) 2010: 6)

(38)에서 수 관형사인 ‘두’가 영어로 서수인 ‘two’로 번역되었다. 한국어에서는 수 관형사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수 관형사형 + 명사’의 형태와 ‘명사 + 수사’ 그리고 ‘명사 + 수 관형사 + 수량 단위’의 수량 표시가 가능하다.²³⁾ 그리하여 한국어에서는 ‘두 소녀’외에도 ‘소녀 둘’과 ‘소녀 두 명’ 모두 나타낼 수 있으나 영어에서는 ‘two girls’로만 번역되어진다.

둘째, 수 관형사 뒤에 ‘분류사’가 결합되어 ‘수 관형사 + 분류사’²⁴⁾의 ‘명사’ 구조일 때 번역 유형을 살펴보겠다.

(39) a. 동전 떨어지는 소리, 종이컵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는 [두 잔의] 자판기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김영하 2006: 60)

b. He hears coins clanking and paper cups being dispensed. She

23) 진실로 외(2009)는 영어의 가산명사 수량은 주로 ‘수사 + 명사’ 형태로, 불가산 명사는 위의 예처럼 ‘수사 + 수량단위 + of + 명사’ 형태로 단 두 가지 형태이지만 한국어는 ‘수 관형사형 + 명사’, ‘수사 + 의 + 명사’,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수사 + 수량단위 + 명사’, ‘명사 + 수사’, ‘명사 + 수 관형사형 + 수량단위’ 등의 여섯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24) 수량 단위의 단어들을 분류사(classifier)라 부르며 “한 학교에 몇 학급이”, “파한 뿌리를 사다가”, “냉면 한 그릇”, “커피 두 잔” 등의 ‘학교’, ‘학급’, ‘뿌리’, ‘그릇’, ‘잔’과 같은 자립명사도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익섭 2005). 한국어 분류사의 명칭은 ‘수량단위 의존명사’, ‘단위명사’, ‘셈단위’, ‘셈가름말’ 등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분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returns with [two cups of] coffee from the machine. (Kim(역) 2010: 39)

한국어에서는 수사가 위의 (39)의 예문과 같이 ‘두 잔의 커피’와 같이 한정(determiner)으로 표현 될 수 있지만 ‘커피 두 잔’과 같이 다른 위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핵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uncountable noun) 일 경우에는 ‘수사 + 수량단위 + of + 명사’로 나타내기에 (39b)에서처럼 ‘two cups of coffee’로 번역된다.

셋째, 수 관형사 ‘한’ 이 부정관사 ‘a’로 번역된 경우이다.

- (40) a. 젖을 떼고 쌀죽과 밥을 먹으며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한] 여자가 된 뒤에도,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되살아났다고 생각한다. (한강 2016: 36)
- b. I think of her being weaned and then raised on rice porridge, growing up, becoming [a] woman, making it through every crisis. (White(역) 2017: 37)

영어의 부정관사 ‘a’나 ‘an’의 경우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단수 가산명사 앞에 사용되지만, ‘하나’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위 (40)의 경우 화자가 말하는 ‘한 여자’는 불특정한 의미가 아닌 ‘한 명’이라는 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관사 ‘a’로 번역되었다. 이 경우에 부정관사 ‘a’는 수사 ‘one’으로 대체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수 관형사를 정리해보면 한국어 수 관형사는 영어로 번역시 모두 핵명사 앞에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첫째, 한국어에서는 수 관형사를 한정하는 방식이 다양하나 영어에서는 수사로만 번역된다. 둘째, 수사 뒤에 ‘분류사’가 결합되어 ‘수사+분류사’ 일 때 영어로는 ‘수사 + 수량단위 + of + 명사’ 형태로 번역되었다. 셋째, ‘한’이라는 수사가 ‘하나’라는 수량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정관사 ‘a’로 번역 된 경우이다. 다음 절

에서는 명사 관형사형의 종류와 번역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명사 관형사형

한국어에서는 명사 수식어의 기본적인 양상은 관형격 조사 ‘의’가 실현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²⁵⁾ 반면 영어에서는 한 개의 명사 또는 여러 개의 명사가 핵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수식명사(modifying noun)라하며 이런 구문이 종종 명사합성어를 만든다. 한국어 수식어 중 명사 관형사형은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278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아래 <표9>는 명사 관형사형의 종류와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9> 명사 관형사형의 종류와 빈도

명사(N1 _의 +N2)	명사+의(N1 _의 +N2)	합계
69(24.8%)	209(75.2%)	278(100%)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명사 관형사형은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지 않은 ‘N1_의+N2’ 구조는 69개(24.8%)와 결합된 ‘N1_의+N2’ 구조는 209개(75.2%)가 발견되었다. 아래에서 명사 관형사형의 종류에 따른 번역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25) ‘-의’는 그것이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는지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명사와 명사가 연결(coordinating)하는 통사적 절차에 이들 명사와 명사의 수식 관계를 나타내 주는 문법 형태소이며 이때 ‘-의’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수식 관계와 문장 내부에서 명사구가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명사간의 결합력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3.2.1 명사(N1∅+N2)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명사 관형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지 않은 ‘N1∅+N2’ 구조가 영어로 번역될 때 아래 <표10>과 같이 나타났다.

<표10> ‘N1∅+N2’ 구조의 번역유형과 빈도

명사	전치사구	생략	합계
49(71%)	9(13%)	11(16%)	69(100%)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N1∅+N2’ 구조는 69개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 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49개(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치사구가 9개(13%) 발견되었다. 각 유형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첫째, 한국어 ‘N1∅+N2’구조가 영어로 명사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아래 예문과 같다.

(41) a. [반진고리] 상자를 뒤져보니 작은 배내옷 하나를 만들 만한 흰 천이 있었다. (한강 2016: 19)

b. Fumbling in her [sewing] box, she found some white cloth that would do for a newborn's gown. (White(역) 2017: 17)

(42) a. 갑작스레 [귀환] 명령을 받은 그로서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감각되는 것도 당연했다. (김영하 2006: 55)

b. Ki-yong, now that he has received the [return] order, is experiencing everything in a different light-as is to be

expected. (Kim(역) 2010: 35)

위의 (41)과 (42)의 두 예문은 수식어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지 않은 ‘N1_∅+N2’의 구조로 모두 명사로 번역되었다. ‘반질고리 상자’와 ‘귀환 명령’은 모두 합성어²⁶⁾로 명사 관형사형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될 수 없다. 즉 ‘반질고리의 상자’나 ‘귀환의 명령’으로 나타낼 수 없다. 이처럼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될 수 없는 경우는 영어로 모두 명사로 번역되어 명사복합어(noun compound)²⁷⁾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N1_∅+N2’ 구조가 전치사구로 번역된 예를 살펴보자.

(43) a. 조금 서두르는 바람에 [명함통] 뚜껑이 책상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김영하 2006: 75)

b. She fumbles a little and the cover [of the case] starts to fall.
(Kim(역) 2010: 50)

(44) a. 그사이 어스름이 찾아와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신경숙 2010: 102)

b. Dusk had fallen in the meantime, and the light [of the streetlamps] shone on [his] face. (Russel(역) 2014: 86)

위의 (43)과 (44)에서는 ‘N1_∅+N2’ 구조인 ‘명함통 뚜껑’과 ‘가로등 불빛’이 전치사구로 번역되었다. 앞의 예문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될 수 없는 경우 명사로 번역되었지만 위의 예문에서는 ‘명함통의 뚜껑’이나 ‘가로등의 불빛’처럼 명사 관형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 결합이 가능하다. 이

26) 이익섭(2005)은 단어 중에는 단일어가 아닌 것들로 형태소가 둘 혹은 그 이상인 것들을 합성어라 명하였다.

27) Givón(1993)에 의하면 영어에서는 파생되는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의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파생의 중간 형태로 명사복합어이며 강제는 수식어에 오게 된다.

처럼 명사 관형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의 결합이 가능한 경우는 명사가 아닌 ‘of-전치사구’로 핵명사 뒤에서 수식하며 번역되었다.

3.2.2 명사+의(N1의+N2)

명사 관형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N1의+N2’구조가 되는 경우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다음 <표11>과 같이 번역되었다.

<표11> ‘N1의+N2’구조의 번역유형과 빈도

소유격	전치사구	명사	생략	합계
75(35.9%)	60(28.7%)	29(13.9%)	45(21.5%)	209(100%)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명사 관형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N1의+N2’구조는 209개 발견되었으며 영어로 명사, 소유격, 전치사구로 번역되었다. 소유격 75개(35.9%)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으며 나머지는 전치사구 60개(28.7%), 명사 29개(13.9%)로 번역되었다. 각각 번역 유형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첫째, 소유격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45) a. 나는 [단이의] 글씨체를 좋아했다. (신경숙 2010: 32)

b. I liked [Dahn's] handwriting. (Russel(역) 2014: 22)

(46) a. [윤미루의] 검은 눈이 윤교수를 쏘아보는 듯했다. 불안이 강화되

어 윤교수에게 공격적이 될 것 같던 [윤미루의] 눈이 이내 흔들렸다. (신경숙 2010: 71)

- b. [Miru's] dark eyes seemed to scowl at Professor Yoon. [Her] eyes flared with nervous energy, and she looked like she might attack Professor Yoon. (Russel(역) 2014: 58)

위의 (45)와 (46)은 한국어에서는 명사 관형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N1의+N2'의 구조로 두 수식어가 같은 형태이나 영어로 번역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5b)의 경우 's-소유격'인 'Dahn's'로 번역되었지만 (46b)에서는 소유격 대명사인 'her'로 번역되었다. Quirk, et al.(1985)은 사람표시의 명사(personal nouns)와 같은 유생물 명사의 경우 's-소유격'을 취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두 예문 모두 사람표시의 명사이기 때문에 's-소유격'으로 번역 가능하다. 하지만 (46)의 경우는 주제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는 한국어의 특성과 달리 주제성이 높을수록 더 작은 언어형태를 선호하는 영어의 특성²⁸⁾에 기반 하여 고유명사이면서 유생물 명사인 한국어 '윤미루'가 앞의 문장에서는 's-소유격'으로 번역되었지만 뒤의 문장에서는 소유격 대명사인 'her'로 번역되었다. 즉, 고유명사가 대명사로 바뀌어 번역된 경우는 한국어의 동일한 어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과 영어의 주제성이 커질수록 대명사를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이와 같이 번역되었다.

둘째, 'N1의+N2'의 구조가 전치사구로 번역되는 경우를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47) a. 일설에 의하면 [물의] 반짝임이 옛 인간들에게 생명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한강 2016: 86)

28) Givón(1993)에 따르면 가장 주제적인 대상은 가장 작은 언어형태인 영대용(zero anaphora)을 사용하여 지칭하고 주제성(topicality)이 작아질수록 대명사, 고유명사 순으로 사용하며, 가장 주제적이지 않고 단절적인 대상을 지칭할 때에는 가장 큰 언어형태인 완전 명사구(full NP)를 사용한다.

- b. One theory puts it down to the fact that, for early man, the glittering [of water] signalled life. (White(역) 2017: 99)

(48) a.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다. (한강 2016: 24)

- b. The border [between sky and earth] has been scrubbed out.
(White(역) 2017: 21)

위 (47)과 (48)은 'N1_위+N2'의 구조로 이전의 한국어 예문들과 같은 구조이지만 명사 수식어가 무생물이다. 'of-전치사구'는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한다(Quirk, et al. 1972). (47b)에서는 'water'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of-전치사구'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48)의 경우 명사 수식어가 무생물로 같은 유형이지만 수식어 '하늘과 땅'에서 공간의 의미가 있는 명사 '사이'가 생략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명사 '사이'를 생략하여 '하늘과 땅'으로 나타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전치사 'between'을 사용하여 명사 '사이'의 의미를 나타냈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유생물의 명사일 경우에는 's-소유격'으로 번역되며 무생물의 명사일 때는 'of-전치사구'로 핵 명사 뒤에서 번역되었다. 반면, 명사 수식어가 유생물의 명사일지라도 한국어가 동일 어휘를 반복한 경우 주제성이 큰 대명사로 번역되며, 무생물의 명사 역시 뜻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어에서 없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N1_위+N2' 구조가 명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49) a. [철길의] 침목을 밟고 어둠 속을 걸었다. (신경숙 2010: 38)

- b. We walked over the [railroad] ties in the dark. (Russel(역) 2014: 27)

위 (49)는 'N1_위+N2'의 구조로 수식어인 '철길'은 '철'과 '길'이 결합된 합성어이며 영어 역시 수식어 'railroad'가 'rail' 과 'road'가 결합된 합성어²⁹⁾이다. 한

국어 수식어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이 되었지만 수식어와 핵명사가 대등한 관계인 대등적 합성어이기 때문에 수식어가 무생물일지라도 소유격이 아닌 명사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수식어 중 명사 관형사형의 번역 유형을 살펴보았다. 명사 관형사형은 관형격 조사 ‘-의’의 결합유무에 따라 번역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N1_Ø+N2’ 구조는 명사와 전치사구로 번역되었으며, 첫째, ‘N1_Ø+N2’ 구조에서 명사 관형사형에 ‘-의’가 결합할 수 없는 경우는 명사 복합어로 번역되고 ‘-의’가 결합이 가능할 경우는 전치사구로 번역되었다. 두 번째로 ‘N1_의+N2’ 구조는 소유격, 전치사구, 명사로 번역되었으며 수식어가 유생물 명사일 경우는 ‘s-소유격’로 번역되고 유생물이면서 고유명사일 경우는 소유격으로 번역되었으며 무생물일 경우는 ‘of-전치사구’로 번역되었다. 또한 수식어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도 대등적 합성어이면 무생물일지라도 명사로 번역된다. 다음 절에서는 서술어 관형사형의 번역 유형을 살펴보자.

3.3 서술어 관형사형

한국어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은 형용사와 동사이다. 이 두 가지 품사의 기본형은 모두 ‘-다’로 끝나기 때문에 형태가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의미와 형식에 의해서 동사와 형용사가 구분되며 활용 시 어간에 형태 변화가 일어난다.

29) Quirk, et al.(1972: 1019)의 합성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compound is a unit consisting of two or more bases. Such ‘compound words’ can be nouns (e.g., blood+test=bloodtest), adjectives (e.g., tax + free =tax-free), or verbs(e.g., spring + clean =springclean). There is no one formal criterion that can be used for a general definition of compounds in English.”

3.3.1 형용사 관형사형

한국어 명사 수식어인 형용사 관형사형은 수식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 등이 붙는다.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형용사 관형사형의 번역유형과 그 빈도는 다음<표12>에서와 같다.

<표12> 형용사 관형사형의 번역유형과 빈도

형용사	전치사구	생략	합계
140(75.7%)	35(18.9%)	10(5.4%)	185(100%)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형용사 관형사형은 총185개가 발견되었으며, 영어로는 형용사로 번역되는 경우가 140개(75.7%)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전치사구 35개(18.9%)가 나타났다. 아래에서 형용사 관형사형의 영어 번역유형을 살펴보자.

첫째, 형용사 관형사형이 영어에서 형용사로 번역되는 경우가 아래 예문과 같다.

(50) a. 나무의자로 몸을 옮기려니 무릎곁에서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다.(신경숙 2010: 93)

b. I tried to move to the bench, but a [sharp] pain in my knee stopped me.(Russel(역) 2014: 78)

위 (50)에서 수식어 ‘강렬한’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형용사 관형사형이며, 핵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가 ‘-(으)ㄴ’ 일

경우 동사에서는 이미 끝난 일(완결법)을 나타내지만, 형용사에서는 현실적인 일을 나타낸다(허웅 1983: 236). 예문에서 화자는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통증’을 나타내기 위하여 형용사 관형사형인 ‘강렬한’을 사용하였으며, 영어에서는 형용사인 ‘sharp’로 일대일 번역하였다.

둘째, 수식어인 형용사 관형사형이 영어로 번역될 때 전치사구로 나타나는 예를 살펴보자.

(51) a. 순간 두통이 사라지면서 마치 모르핀을 맞은 것처럼 [황홀한] 행복감이 찾아왔다. (김영하 2006: 23)

b. As his headache disappears, a feeling [of ecstasy] washes over him, as if a shot of morphine were injected into his arm. (Kim(역) 2010: 11)

(52) a. 그야말로 그들은 [강렬한] [수컷] 냄새를 풍겼다. (김영하 2006: 77)

b. The scent [of virile males]. (Kim(역) 2010: 52)

위의 (51)과 (52)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형용사 관형사형인 ‘황홀한’과 ‘강렬한’이 영어에서는 전치사구로 번역되었다. 영어에서 핵명사인 ‘행복감’과 ‘냄새’가 생긴 원인을 표현하기 위하여 ‘of-전치사구’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예문 (51)과 달리 (52)의 경우는 형용사 관형사형 뒤에 ‘수컷’이라는 명사 관형사형이 겹쳐서 나타났다. 명사 관형사형인 ‘수컷’은 관형격 조사 ‘-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of-전치사구’로 번역 되어졌다.

지금까지 수식어 중 형용사 관형사형의 번역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형용사 관형사형은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형용사와 전치사구로 번역되어 나타났다.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경우는 영어로 형용사로 번역되었으며, ‘-(으)ㄴ’일 경우는 현실적인 사실을 나타냈다. 다음 장에서

는 수식어 중 동사의 번역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3.3.2 동사 관형사형

동사 역시 형용사 관형사형처럼 수식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 이 붙어서 핵명사를 수식한다. 수식어인 동사는 한영 병렬언어 자료에서 78개가 발견되었으며, 영어로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었다. 아래 <표 13>은 동사 관형사형이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유형과 그 빈도이다.

<표13> 동사 관형사형의 번역유형과 빈도

관계절	분사	전치사구	부정사	형용사	생략	합계
68 (38.7%)	22 (12.5%)	22 (12.5%)	3 (1.7%)	30 (17%)	31 (17.6%)	176 (100%)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동사 관형사형은 176개가 발견되었으며, 관계절이 68개(38.7%)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으며, 다음으로 형용사가 30개(17%)가, 분사와 전치사구가 각각 22개씩(12.5%), 부정사가 3개(1.7%)로 번역되었다. 동사 관형사형이 관계절로 번역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3.3.2.1 관계절

관계절³⁰⁾은 영어에서 명사후 수식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며 명사

전 수식어만 가능한 한국어와 현저히 다르다.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한국어 동사 관형사형이 핵명사를 수식할 때 관계절로 번역되는 경우는 68개(38.7%)가 발견되었으며 그 예를 아래에서 보자.

- (53) a. 1944년 공습으로 [파괴되었던] 병원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한 뒤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한강 2016: 28)
- b. A faithful reconstruction of a building [that had been destroyed] in a 1944 air raid, no longer used as a hospital but as an art gallery. (White(역) 2017: 26)

위 (53)에서 한국어 ‘파괴되었던’에서 ‘-던’은 선어말어미 ‘-더-’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복합 어미로서,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일을 나타낸다(남기심 2005). (53a)의 경우 ‘-던’ 앞에는 시제 관련어미인 ‘-었-’이 나타났으며 그 경우 화자가 말하는 그 당시에 이미 행위나 동작이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핵명사인 ‘병원’이 과거에 이미 파괴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동사 관형사형이 ‘-었던’과 결합된 경우는 과거에 완료된 경험이나 과거의 일시적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시 시제가 과거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번역할 수 있다. (53b)에서 보면 ‘had been destroyed’로 과거완료 시제로 번역되었으며 관계사와 함께 핵명사 ‘building’을 뒤에서 수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상황이나 사건이 청자에게 익숙하고(familiar), 잘 알려져(known) 있거나 접근 가능하거나 새로운 정보로 도전받지 않을 것 같다고 화자가 가정할 경우 제한적 관계절(restrictive relative clause)을 사용한다. 그리하여 위의 (53b)는 관계절로 번역되었으며, 주격 관계절에서 인간 핵명사나 비인간 핵명사 둘 다 가능한 접속사 ‘that’이 사용되었다.

둘째, 관계대명사절과 달리 필수 요소가 다 있는 경우는 동사 관형사형이

30) 관계절은 명사 수식어를 명사구 안에 포함시키는 종속절(subordinate clauses)로 기능적으로 지시적 확인(referential indentification)이라는 문법의 일부가 된다(Givón 1993).

관계부사절로 번역되었다.

(54) a. 그는 벌떡 일어나 복도로 나가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복도 끝을
향해 달렸다. (김영하 2006: 134)

b. Ki-yong bolted out into the hall and sprinted toward the end of hallway, [where faint light was coming through]. (Kim(역) 2010: 96)

위의 (54)에서 동사 관형사형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며, 영어에서도 주어와 목적어 논항 모두 있는 관계부사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하여 핵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고 있으며, 수식어가 핵명사인 ‘복도 끝’을 보충 설명해주기 위하여 콤마(,)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계절을 비제한적(non-restrictive) 관계절이라 하며, 화자가 이전에 언급되었던 명사인 ‘hallway’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한다.

3.3.2.2 분사

분사(participle)³¹⁾는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경우이며 문법표지(grammatical marker)로는 ‘-ing(현재분사)’와 ‘-ed(과거분사)’이다. 동사 관형사형은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동사 관형사형 176개 중

31) 분사는 형용사적인 성질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분사의 형용사적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본래 동사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descriptive)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분사는 동사적 성질을 강하게 나타내며, 수식을 해주는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후치(Postposition)라고 한다 (Poustma 1926: 529).

에서 분사³²⁾는 22개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현재분사는 17개(77.3%)가, 과거 분사는 5개(22.7%)가 나타났으며 각각의 번역 유형을 아래 예를 통해 살펴보자.

첫째, 동사 관형사형이 현재분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 (55) a. 그는 마우스 옆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김영하 2006: 42)
 b. He gulps down the coffee [cooling] next to his mouse. (Kim(역) 2010: 25)

한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으로 현재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형용사나 ‘명사+이다’ 구문에서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진 ‘-는’이 결합될 수 없지만 동사에서는 가능하다. (55)에서 ‘식어가는’은 핵명사인 커피가 지금 현재 식어가는 중임을 나타내며 영어에서는 진행이면서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작³³⁾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cooling’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한국어 예문에서 ‘식어가는’이 품사로는 동사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영어로 동사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 중 현재분사³⁴⁾ ‘cooling’으로 번역되었다. 위의 예문처럼 목적어나 수식 어구를 가진 명사 뒤에 오는 분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로 바꾸어 쓸 수 있다(Curme, 1935: 451).

둘째, 동사 관형사형이 과거분사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 (56) a. 이따금 때 이른 [소국을 심어놓은] 화분이 대문 앞에 놓여 있기도

32) House와 Harman(1950)에 의하면 본래 분사의 ‘participle’ 이라는 말은 sharing, partaking 의 의미를 지닌 Latin 어 particip- ium에서 유래된 말로 동사로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33) 현재분사의 경우는 특정 기간에 일어나는 동작이나 상태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낸다(Poutsma 1926: 517).

34) 현재분사는 수식하는 명사의 뒤에 올 때에는 동사적 성질이 더 많이 표출되기 때문에 현재분사가 그 자신의 목적어나 수식어를 가질 때가 많다(Crume 1935)

했다. (김영하 2006: 97)

- b. There was even the occasional flowerpot [planted with premature chrysanthemums] sitting in front of someone's house. (Kim(역) 2010: 72)

한국어에서는 주제성이 낮은 행위자는 생략을 하여 능동문으로 나타내지만 영어에서는 주제성이 낮은 행위자는 탈락시키고 수동문으로 나타낸다(정연창, 김은일 2009). 위의 (56)에서 동사 관형사형 ‘소국을 심어놓은’에서는 행위자가 있으나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행위자가 생략 가능하기에 능동문으로 나타나지만 영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행위자는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동문으로 나타나며 ‘which is’가 생략된 과거분사 형태로 번역되었다. 분사의 경우 핵명사 뒤에 위치하여 수식을 할 때, 분사는 관계절처럼 명사의 의미를 확인(identifying)시켜주는 기능을 한다(Swan, 2005: 453). (56)의 경우 관계대명사와 be동사가 생략되어 파생된 것으로 핵명사 뒤에서 위치하여 핵명사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분사(과거)를 사용하였다.

3.3.2.3 전치사구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전치사구가 존재하며,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동사 관형사형이 전치사구로 번역된 경우는 22개(12.5%)가 발견되었다. 아래의 예를 통해 한국어 수식어인 동사 관형사형이 전치사구로 번역시 그 유형을 살펴보자.

첫째, 동사 관형사형이 ‘in-전치사구’로 번역된 경우가 아래의 예와 같다.

- (57) a. 운동장에선 [체육복을 입은] 여자아이들이 배구를 하고 있었다.(김

영하 2006: 54)

- b. He watches girls [in gym clothes] playing volleyball.(Kim(역) 2010: 34)

위의 (57)에서 동사 관형사형이 핵명사 뒤에서 전치사구로 수식하고 있다. 동사 관형사형인 ‘체육복을 입은’은 영어에서 관계절이나 현재분사의 형태인 ‘who is wearing’ 또는 ‘wearing’으로 번역될 수 있었으나 전치사 in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뒤에 분사 형태인 ‘playing’이 나타나 분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전치사구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코퍼스³⁵⁾에서 유니폼이나 체육복처럼 규정이나 목적에 따라 입는 옷일 경우 ‘in-전치사구’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동사 관형사형이 ‘on-전치사구’로 번역된 예를 보자.

- (58) a. [전화를 건] 사람은 퀵서비스 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뒤 어디로 물건을 배달해야 되는지 물었다. (김영하 2006: 99)
b. The person [on the line] identified himself as an employee of a messenger company, and asked him where they should deliver a package. (Kim(역) 2010: 68)

위의 (58)에서 동사 관형사형인 ‘전화를 건’이 관계절 형태인 ‘who called the phone’으로 번역되지 않고 전치사 ‘on’을 사용하여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영어의 경우 동작과 상태를 구분하여 표현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은일 2016). 한국어에서는 상태 동사의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사 관형사형 ‘전화를 건’의 경우는 ‘지금 통화를 안 하는 사람’ 일 수도 있기 때문에 ‘called’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

35) <https://www.english-corpora.org/>

i) When the DJ brought it up, we felt like school boys [in gym clothes] sitting at an upscale Chinese restaurant gaping at a spread of Qing dynasty delicacies we'd never even heard of.(Azalea: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 Culture)

었다. 반면, 영어에서는 동작과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 ‘on the line’으로 ‘지금 통화 중인 사람’ 뜻으로 번역되었다.

마지막으로, 동사 관형사형이 ‘with-전치사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59) a. 나는 삽으로 땅을 파는 사람, 즉 삽질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 포즈로 다섯 번, 씨 뿌리는 사람을 두 번, [빗자루를 가진] 소녀를 두 번 소묘했어. (신경숙 2010: 75-76)

b. I have drawn a man with a spade, that is un becheur, five times over in a variety of poses, a sower twice, a girl [with a broom] twice. (Russel(역) 2013: 62)

동사 관형사형인 ‘빗자루를 가진’이 코퍼스에서 ‘have/has a broom’보다는 ‘with a broom’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³⁶⁾ 관계절 형태인 ‘who has a broom’으로 번역되지 않고 전치사 ‘with’를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with’의 기본 개념은 ‘together’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와 함께(together)’라는 개념은 ‘with’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에 ‘함께하는’ 혹은 ‘더불어 있는’ 두 개의 대상이 있음을 뜻한다(이기동 1991). 그는 대상을 각각 X, Y라고 하면 X with Y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며 X와 Y는 어느 주어진 장소나 상황에서 X와 Y가 상호 작용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위의 (59)에서는 빗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구를 동반하고 있다는 의미 확장이 가능하기에 영어로 전치사 ‘with’와 함께 번역되었다.

36) 코퍼스에서 ‘with a broom’은 1203개 발견되었으며, ‘have a broom’은 26개가 ‘has a broom’은 19개가 발견되었다.

(<https://www.english-corpora.org/now/>)

3.3.2.4 부정사

명사를 수식하는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분사 외에도 부정사(infinitive)가 있으며 이를 비정형 관계절(non-finite relative clause)이라 한다(Givón 1993).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부정사는 3개(1.7%) 발견되었으며, 아래에서 동사 관형사형이 부정사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 (60) a. 이제는 수요일이 되어도 [받아올] 약이 없는데, 나는 수요일 이른 오전시간이면 그 병원의 대기실에 가 앉아 있었다. (신경숙 2010: 28)
b. There was no more medicine for me [to pick up] on Wednesdays, yet every Wednesday morning I could be found sitting in the waiting room of that hospital. (Russel(역) 2014: 18-19)

‘-르’은 선어말어미 ‘-겠’과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만 양태적인 면에서 ‘추측이나 미정, 예정, 의지, 의도’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남기심·고영근 2014). 위 (60a)에서 ‘받아올’은 형태적 관점에서 관형사 어미 ‘-르’로 의도를 나타내며, 품사로는 동사이지만 기능적 관점에서는 핵명사인 ‘약’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받아오다’가 영어에서는 핵명사 뒤에서 부정사로 나타났다. 수식받는 명사와 부정사의 동작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부정사가 명사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경우와 명사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경우, 그리고 (60)처럼 명사가 동작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사 관형사형은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형용사, 관계절, 분사, 동사, 부정사가 발견되었다. 동사도 형용사처럼 수식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 붙어서 핵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며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번역유형이 달라졌다. ‘-던’ 앞에 시제 관련어미 ‘-었’이 결합되면 과거에 완료된 경험이나 과거의 일시적 경험을 나타내어 영어로 관계대명사

와 함께 과거완료시제로 번역되며, 시제 관련어미가 없으면 현재 상태나 진행 또는 지속 중이던 것을 나타내어 과거분사로 번역되었다. 또한 동사에 ‘-는’이 결합된 경우는 현재이면서 진행의 의미이기에 현재분사로 번역되었으며, ‘-르’이 붙으면 추측이나 미정, 예정, 의지, 의도 등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부정사로 번역되었다.

3.3.2.5 형용사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동사 관형사형이 형용사로 번역되는 경우는 30개 (17%)이며 번역유형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61) a. 그녀는 [빈] 책상을 노려본다. (김영하 2006: 31)
 b. She glared at the [empty] desk overtaken by the solitary chrysanthemum. (Kim(역) 2010: 17)
- (62) a. [부서진] 바다가 모래펄을 미끄러져 뒤로 물러난다.(한강 2016: 58)
 b. The [shattered] water slides back over the sandy shore. (White (역) 2017: 59)

(61)과 (62)에서 동사 관형사형인 ‘빈’과 ‘부서진’은 ‘비다’와 ‘부서지다’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경우로 모두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모두 형용사 ‘empty’와 ‘shattered’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shattered’의 경우 동사인 ‘shatter’에 ‘-ed’가 붙어 형용사 형태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명사 수식어들의 위치에 따른 영어 번역 유형과 그 요인을 각 품사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명사 수식어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 영어 수식어 위치에 따른 어순의 변화와 번역 유형을 살펴볼 예정이다.

IV. 어순변화에 따른 번역양상

지금까지는 수식어가 단독으로 핵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의 번역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수식어가 두 개 이상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 번역어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수식어 중 한국어의 경우 여러 개의 수식어가 겹쳐서 핵명사를 수식하여도 항상 핵명사 앞에 위치하지만 영어에서는 수식어가 핵명사 앞이나 뒤 또는 앞·뒤에 위치하고 있다. 발견된 수식어들의 위치에 따라 어떠한 번역양상이 있는지 알아보자. <표14>는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나타난 영어 수식어들의 위치와 그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14> 영어 수식어의 위치와 빈도

명사전 수식어	명사후 수식어	명사전·후 수식어	합계
51(54.2%)	26(27.7%)	17(18.1%)	94(100%)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영어 수식어의 위치는 세 가지이며 명사전 수식어들은 51개(54.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명사후 수식어가 26개(27.7%), 그리고 명사전·후 수식어가 17개(21.5%)가 발견되었다. 먼저 명사 수식어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63) a. 그런 그녀가 [이] [도시의] 중심가를 걷는다. (한강 2016: 38)

b. As I have imagined her, she walks [this] [city's] streets.
(White(역) 2017: 39)

위의 (63)을 보면, 지시 관형사 ‘이’와 명사 관형사형 ‘도시(의)’가 핵명사인 ‘중심가’를 겹쳐서 수식하고 있으며, 영어에서 ‘this’와 ‘city’로 어순 변화 없이 일대일로 번역이 되었다. 두 언어 모두 핵명사를 중심으로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수식어가 겹쳐서 나타날 경우 어순이 바뀌면 그 의미나 어감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비문이 아니지만 영어의 경우 어순이 엄격하기 때문에 수식어의 어순이 바뀌면 비문이 된다. 다음 장에서 영어 수식어의 위치에 따라 어순 변화를 살펴보자.

4.1 명사전 수식어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겹쳐서 핵명사를 수식할 때 두 언어 모두 명사전 수식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94개 중에서 51개 (54.2%)로 가장 많았으며, 번역시 어순이 바뀌는 경우는 7개 나타났다. 두 언어의 수식어 위치가 같아도 번역시 어순이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명사전 수식어가 번역시 어순이 바뀌는 예이다.

(64) a. 귀환병 출신의 아버지와 피살자 가족이자 노동당원인 어머니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을 것이다. (김영하 2006: 121)

b. Ki-yong's father, a returned POW, and his mother, a member of the Worker Party of Korea, were [a] [most unlikely] pair. (Kim(역) 2010: 86)

(65) a. [맨발인] [내] 발을 그가 내려다보았다. (신경숙 2010: 99)

b. He looked down at [my] [bare] feet. (Russel(역) 2013: 83)

위 (64)와 (65)의 경우 핵명사 ‘쌍’과 ‘발’에 대하여 두 개의 수식어가 겹쳐서 나타났다. 영어로 번역시 두 수식어는 한국어에서처럼 핵명사 앞에서 겹쳐서 수식하는 명사전 수식어가 나타났다. 하지만 수식어들은 어순이 바뀌어서 번역되었다. Givón(1993)에 의하면 명사구 내의 엄격한 어순을 ‘양화사(quantifier) - 한정사(determiner) - 형용사구(adjective phrase) - 명사(noun)’로 서술한다. 이 수식 어순에 따라 (64)에서는 한국어 동사 관형사형 ‘어울리지 않는’과 수사 관형사 ‘한’이 영어에서 한정사인 ‘a’와 형용사구인 ‘most unlikely’ 순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65)는 명사 관형사형 ‘맨발의’와 ‘내’가 영어로 한정사인 소유격인 ‘my’와 형용사인 ‘bare’ 순으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 역시 한국어와 영어 모두 명사전 수식어들이다. 앞의 예문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66) a. [검은] [긴] 머리가 앞으로 쏟아져 내려 그녀의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다. (신경숙 2010: 55)

b. Her [long] [black] hair spilled forward and hid her face from view. (Russel(역) 2013: 44)

(67) a. [털실로 짠] [붉은] 목도리를 목에 두른 정희가 기영을 향해 생긋 웃었고, 기영은 답례할 기회를 놓친 채 그녀를 지나갔다. (김영하 2006: 130)

b. Jong-hee smiled, a [red] [knitted] scarf looped around her neck, and Ki-yong slid past her, missing his chance to reciprocate. (Kim(역) 2010: 93)

위의 (66)과 (67)의 예문 역시 영어 수식어가 모두 명사전 수식어들로 겹쳐서

수식하고 있으며 형용사의 어순인 ‘소유 - 지시 - 수량 - 의견 - 크기 - 나이 - 모양 - 색 - 기원 - 재료 - 목적’³⁷⁾에 따라 번역되었다. (66)은 수식어 ‘검은’과 ‘긴’이 형용사 어순대로 크기인 ‘long’이 먼저오고 다음으로 색인 ‘black’ 순으로 번역되었다. (67)에서는 수식어 ‘털실’은 재료를 나타내고 ‘붉은’은 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어로 ‘색-재료’인 ‘red knitted’ 순으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한국어와 영어 수식어가 겹쳐서 나타날 때 영어가 명사전 수식어로 번역된 경우 명사구 내의 엄격한 어순에 따라 ‘양화사- 한정사- 형용사구- 명사’ 순으로 번역되거나 형용사 번역 어순인 ‘소유- 지시- 수량- 의견- 크기- 나이- 모양- 색- 기원- 재료- 목적’에 따라 번역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수식어가 겹쳐서 나타날 때 영어에서 명사후 수식어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4.2 명사후수식어

수식어가 겹쳐서 나타날 때 한국어는 명사전 수식어지만 영어는 명사후 수식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총 26개(27.7%)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전치사구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of-전치사구’로 나타난 경우는 22개였으며 나머지 4개는 그 외³⁸⁾ 전치사구 형태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수식어가 겹쳤을 때 핵명사 뒤에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68) a. 그러나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 벽 앞에 초를 밝히고 꽃을 바치는 것이 넋들을 위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안다. (한강 2016:

37) Clark and Clark(1977), Quirk et al.(1985), Vendler(1967)에 의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들의 순서는 핵명사와의 관계를 의미의 본질성(intrinsicality)이라 부르는 기준에 따라 배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8) ‘at-전치사구’, ‘in front of-전치사구’, ‘to-전치사구’, ‘through-전치사구’ 형태로 나타났다.

108)

- b. But she knew that the people [of [this] [city]] did not light candles and lay flowers in front of that wall only for the sake of such souls. (White(역) 2017: 131)

(69) a. 나는 강의실을 향해 걸어가며 변하지 않은 것들, 도서관과 구내서점과 학교 안의 우체통, 자주 들을 대고 앉아 있었던 [연못] [앞의] 나무 의자들을 눈으로 살펴보았다. (신경숙 2010: 55)

- b. On my way to the lecture hall, I looked for things that had not changed the library, the campus bookstore, the school post office, the wooden benches [in front] [of the lotus pond] where I used to sit. (Russel(역) 2013: 44)

위의 (68)과 (69)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수식어가 핵명사 앞에서 겹쳐서 나타나는데 반면 영어에서는 수식어가 모두 핵명사 뒤에서 번역되었다. (68)의 예문을 보면 한국어 수식어인 지시 관형사 ‘이’와 관형격조사 ‘-의’가 결합된 명사 ‘도시의’가 영어로 ‘of this city’로 번역되었다. 이전 장 명사 관형사형의 ‘N1의+N2’ 구조에서 ‘of-전치사구’는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 관형사형과 함께 사용한다고 하였다. 명사 관형사형이 ‘도시’가 무생물이기 때문에 ‘of-전치사구’로 번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9)의 경우 ‘N1의+N2’ 구조로 수식어가 무생물이기 때문에 전치사구로 나타내지만 ‘of-전치사구’가 아닌 수식어인 ‘앞’을 나타내는 ‘in front’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수식어가 겹쳐서 나타나더라도 명사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N1의+N2’ 구조이고 핵명사가 무생물일 경우는 ‘of-전치사구’로 번역되었으며, 수식어에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을 경우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수식어가 핵명사 명사전·후에 위치하여 어떠한 어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4.3 명사전·후 수식어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서는 수식어가 핵명사 앞이나 뒤 어디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수식어 위치에 따라 어순의 변화가 나타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어순 변화를 살펴보자.

- (70) a. 지진처럼 땅이 울리고 [중학생들의] [새된] 목소리가 점액질처럼 끈끈하게 엉기며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김영하 2006: 70)
b. Like a small earthquake, the floors thunder and the [high] voices [of students] coagulate, sticky like mucus, growing slowly in intensity. (Kim(역) 2010: 46)
- (71) a. [미래 누나가 찾아내지 못한] [실종된]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이 찾아내겠다고 한다. (신경숙 2010: 83)
b. She said she would do whatever it took to find [the] man [who had disappeared], the one [her sister had failed to find]. (Russel(역) 2013: 68)

위의 (70)에서 한국어에서는 수식어인 명사 관형사형 ‘중학생들의’와 형용사 관형사형 ‘새 된’이 모두 핵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있으나 영어에서는 앞·뒤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형용사 ‘새 되다’의 목소리가 높고 날카롭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high’로 번역되었으며 핵명사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명사의 경우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N1의+N2’의 구조이며 핵명사가 무생물이기 때문에 영어로 ‘of-전치사구’인 ‘of students’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위의 예문 (71)에서 한국어는 수식어가 동일한 수식 어미인 ‘-(으)ㄴ, -는, -(으)르, -던’ 등과 함께 있어야하므로 동일한 형태의 수식어가 핵명사를 중첩하여 수식한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는 하나의 명사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동시에 수식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71b)와 같이 두 개의 동격절로 번역되었으며, 핵 명사와 가까이 있는 수식어부터 먼저 번역되었다. 한국어는 명사전 수식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핵명사와 수식어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위의 (71a)를 보면 서술어 관형사형, 동사 관형사형, 지시사 세 개의 수식어 모두가 핵명사인 ‘사람’을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수식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명사전 수식어 + 지시사와 명사후 수식어 + 관계절’이 함께 사용하여 핵명사와 수식어 사이 거리를 좁히면서 의미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다.

지금까지 명사 수식어들이 핵명사를 중심으로 겹쳐서 나타날 때,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변화되어 번역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어와 영어 둘 다 명사전 수식어들이 겹쳐서 나타날 때, 영어 번역시 Givón의 명사구내의 엄격한 어순과 형용사 수식 어순에 따라 수식어들의 어순이 달라졌다. 두 번째로,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N1의+N2’의 구조이고 핵명사가 무생물일 경우는 ‘of-전치사구’로 번역되었으며, 수식어에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을 경우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로 번역되었다. 세 번째로, 한국어와 영어의 수식어들이 겹쳐서 나타났을 때, 영어에서 수식어들이 핵명사를 중심으로 앞뒤 동시에 수식하며 핵명사와 가까이 있는 수식어부터 번역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어에서 추가된 수식어들의 번역유형과 한국어 수식어가 영어로 번역시 생략되는 유형을 살펴보자.

V. 추가 및 생략의 번역양상

5.1 추가

한국어 수식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한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영어에서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정사(determiner)를 꼽을 수 있다. Bloomfield(1968)는 어떤 유형의 명사표현도 항상 어떤 한정사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사를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사 중에서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관사(article), 소유격 대명사(possessive pronoun), 지시사(demonstrative) 그리고 양화사(quantifier) 위주로 살펴보겠다.

<표15> 한정사의 종류와 빈도

관사	소유격 대명사	지시사	양화사	합계
272(81.4%)	49(14.7%)	8(2.4%)	5(1.5%)	334(100%)

5.1.1 관사

관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이다. 한국어에서는 관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독립된 단어로 쓰이며 관사를 통하여 핵명사와 수식어의 정보 상태를 파악하기 쉽다. 관사 272개 중에서

정관사(definite article)가 187개,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가 48개 발견되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한국어에서 나타나지 않은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 유형을 살펴보자.

(72) a. 어느 순간 주머니에서 나온 윤미루의 손을 보았다. 검은 눈과 희고 맑은 피부로 인해 아름답게 느껴지는 윤미루는 놀랍게도 [Ø] 노인의 손을 지니고 있었다. (신경숙 2010: 69)

b. But then she took her hands out of her pockets. Miru, so pretty with her dark eyes and fair skin, had [the] hands of an old person. (Russel(역) 2013: 56)

(73) a. 오래전 그녀는 바닷가에서 [Ø] 흰 조약돌을 주웠다. (한강 2016: 87)

b. A long time ago she found [a] white pebble on a beach. (White(역) 2017: 101)

위의 (72)에서 ‘윤미루의 손’에 관하여 앞 문장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시 한국어에 없었던 정관사 ‘the’를 사용하였으며, (73)에서는 핵명사인 ‘조약돌’이 ‘하나’라는 고유의 의미이자 수 개념을 내포하였으며, 앞 문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신정보(new information)³⁹⁾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어로 번역시 부정관사 ‘a’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39) Chafe(1976)에 따르면 구정보(old/given information)는 발화시에 화자가 청자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지식이며, 신정보(new information)는 청자가 몰랐던 정보를 화자가 발화를 통해 청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가정하는 지식이다. Pinker(1994)는 구정보를 발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배열은 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화자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래된 정보나 이미 정해진 정보, 이해된 정보나 화제 등에 관한 정보는 대개 앞에 오고, 새로운 정보나 강조하려는 정보는 뒤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5.1.2. 소유격 대명사

한국어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요소 중 소유격 대명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49(14.7%)개가 발견되었으며,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74) a. 남한의 대학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하던 [Ø] 대학 시절과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김영하 2006: 102)

b. Nothing has changed since [their] college days when they clandestinely studied Kim Il Sung's Juche Idea. (Kim(역) 2010: 70)

위의 (74)에서 한국어에서는 누구의 대학 시절인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어에서는 뒤에 오는 시간 부사절에 명시된 'they'와 문법적 행위적 일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핵명사 앞에 소유격 대명사인 'their'를 써서 번역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앞에 언급된 문맥으로 독자가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생각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Ikegami(1991)는 인간 행위자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인간 행위자를 부각(focus)시키는 언어유형과 인간 행위자를 억제(suppress)하는 두 가지 언어유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 한국어는 인간 행위자를 억제하는 언어유형에 속하고 영어는 인간 행위자를 부각시키는 언어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없었던 소유격 대명사가 영어에서 인간 행위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났다.

5.1.3 지시사

다음은 한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어에서는 나타나는 수식어 중에서 지시사에 대하여 살펴보자.

- (75) a. 어쩌면 기영은 시네마테크를 기웃거리는 [Ø] 영화광들이 드러내는
권태에 주눅 들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김영하 2006: 114)
- b. The tedium exuded by [these] movie buffs intimidated Ki-yong.
(Kim(역) 2010: 79)

정관사와 마찬가지로 지시사는 단/복수와 상관없이 모든 명사를 한정(definite)하여 어떤 특정한(specific)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해준다. 한국어에서는 문맥상 중의성(ambiguity)이 문제되지 않는 한 지시사를 생략하지만 위의 (75)에서 영어 번역시 ‘every’와 마찬가지로 지시사의 결여로 문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사 ‘these’를 사용함으로써 핵명사인 ‘movie buffs’가 문장 속에서 특정한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제경미 2019).

5.1.4. 양화사

양화사⁴⁰⁾에는 양(quantity)이나 범위(extent)를 나타내는 명사 수식어이다. 아래 예문에서 한국어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어에서 나타난 요소 중에서 양화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 (76) a. 모텔 출신의 여자와 재혼했고 결혼 후에도 주변에 여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모르는 [Ø] 숨은 매력이 있을 수는 있었다.
(김영하 2006: 35)
- b. Perhaps he possesses [some] hidden charisma that is invisible to her. After all, his second wife is a former model and he enjoys a

40) 양화사에는 ‘some, all, many, few, much, little, only, even’이 있다(Givón 1993).

continuous supply of women. (Kim(역) 2010: 20)

양화사 ‘some’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화 시키지 않고, 실체가 없는 정신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에 쓰인다(Poutsma 1928: 108). 즉, ‘some’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의 의미로 쓰이기에 (76)에서 한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어 번역시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영어에서 나타나는 수식어는 대표적으로 한정사가 있으며,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관사, 소유 대명사, 양화사, 지시사가 발견되었다. 영어에서 수식어가 구정보일 경우는 정관사를 신정보일 경우는 부정관사가 나타났으며, 인간 행위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소유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또한 장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양화사를, 특정 대상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시사를 사용하였다. 다음절에서 한국어에서는 사용되었으나 영어에서는 생략된 경우를 살펴보자.

5.2 생략

생략(ellipsis)은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의 의사소통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이며, 문법적인 탈락현상으로 생략된 부분은 암묵적으로 문맥 내에서 존재하고 생략이 일어난 부분은 문장의 의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복원될 수 있다(Quirk et al., 1985: 884). 한국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이므로 명사구로 구성이 된 주어나 목적어는 상대적으로 비초점이 되어 쉽게 생략이 된다. 반면에 영어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고 어순에 의해 격이 배당이 되므로 생략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이므로 명사구로 이루어진 주어나 목적어가 쉽게 생략이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명사 수식어는 문장의 필수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알 수 있는 요소들의 생략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한국어 명사 수식어가 영어에서 생략되는 유형을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자.

<표16> 명사 수식어가 생략되는 유형과 빈도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	명사 관형사형	형용사 관형사형	동사 관형사형	합계
18 (12.4%)	2 (1.4%)	72 (49.6%)	30 (20.7%)	23 (15.9%)	145 (100%)

앞서 설명했듯이 영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나며,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도 한국어에서는 있던 수식어가 영어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명사 관형사의 생략이 72개(49.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형용사 관형사형이 30개(20.7%), 동사 관형사형이 23개(15.9%), 지시 관형사 18개(12.4%) 그리고 수 관형사 2개(1.4%)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각각의 번역 유형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5.2.1 지시 관형사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수식어인 지시 관형사가 생략되어 나타난 경우는 18개(12.4%)였으며 지시 관형사가 생략되어 번역된 경우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 (77) a. 그 후에도 [그] 삼촌, 우리 집에 가끔 들르곤 했어. (김영하 2006: 67)
b. After that, Uncle sometimes came over to our house. (Kim(역) 2010: 45)

영어에서 가산명사일 경우 핵명사 앞에 한정사를 동반하지만 위의 (77b)에서는 한정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어에서는 핵명사인 ‘삼촌’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시 관형사 ‘그’를 사용하였지만 영어에서는 삼촌에 대하여 이미 언급하

였기 때문에 한정사 없이 명사만 그대로 반복해서 번역하였다. 즉, 핵명사 ‘uncle’을 고유명사로 보았다. 또한, 친숙의 정도가 가장 강한 가족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수식어 없이 핵명사로만 번역되었다.

5.2.2 수 관형사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수 관형사가 영어로 번역될 때 생략되는 경우는 2개(1.4%) 나타났으며 다음 예를 통해 살펴보자.

- (78) a. 첫날 원고를 봉투에서 꺼내 그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등이 반듯하게 펴지는 느낌이었다. (신경숙 2010: 89)
b. The first time I pulled the manuscript out of the envelope and read that [Ø] sentence, I felt my spine straighten. (Russel(역) 2013: 74)

위 (78)의 경우 핵명사를 수식하기 위하여 한국어에서는 수 관형사 ‘첫’(서수)을 사용하였으나 영어에서는 번역되지 않았다. 한국어에서는 ‘문장’이 어느 문장인지 수식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영어에서는 문맥의 흐름상 봉투를 꺼냈을 때 바로 보이는 맨 위의 문장이 첫 문장이기에 핵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번역하였다.

5.2.3 명사 관형사형

한국어에서 수식어였던 명사 관형사형이 영어로 번역시 생략된 경우는 한

영 병렬언어자료에서 72개(49.6%) 나타났으며 아래 예문에서 번역 유형을 살펴보자.

(79) a. 오래전 늦은 밤 그녀는 모르는 남자가 전신주 아래 모로 누워 있는 것을 봤다. 전신주 아래 난폭한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한밤의] 골목이 고요하고 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강 2016: 54)

b. Once late night long ago, she'd seen a man lying at the foot of a telegraph pole. Though there seemed no immediate threat of violence, the [Ø] alley was otherwise deserted. (White(역) 2017: 55)

(79)에서 한국어에서 핵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쓰인 명사 관형사형 ‘한밤’이 영어에서는 생략되어 번역되었다. 한국어에서 앞의 문장에서 화자가 이미 늦은 밤에 모르는 남자를 봤다고 언급하였으며, 영어에서도 ‘late night’이라고 번역을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어에서는 핵명사를 보충 설명하기 위하여 수식어를 사용하였지만 영어에서는 이미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수식어가 생략되었다.

5.2.4 형용사 관형사형

다음은 형용사 관형사형이 영어에서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30개(20.7%) 나타났으며 아래 예문에서 살펴보자.

(80) a.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고 몸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신경숙 2010: 96)

b. The [Ø] heat drained out of me, and my body turned as cold as

ice. (Russel(역) 2013: 80)

위 (80)에서 수식어인 형용사 관형사형 ‘뜨거운’이 영어로 번역될 때 나타나지 않았다. ‘열기’는 ‘뜨거운 기운’으로 정의되며⁴¹⁾, 한국어에서는 ‘뜨겁다’는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핵명사를 보충 설명하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 수식어를 생략하여 번역하였다.

5.2.5 동사 관형사형

아래는 한국어에서 수식어였던 동사 관형사형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생략되어 번역된 경우이다.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23개(15.9%) 나타났으며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81) a. 오래전 늦은 밤 그녀는 [모르는] 남자가 전신주 아래 모로 누워 있는 것을 봤다. (한강 2016: 54)
- b. Once late night long ago, she'd seen a [Ø] man lying at the foot of a telegraph pole. (White(역) 2017: 55)

위의 (81)에서 한국어 동사 관형사형 ‘모르다’가 영어로 번역시 생략되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정관사 ‘a’가 핵명사 ‘man’ 앞에서 사용되었다. 부정관사의 경우 어떤 명사의 처음을 소개하는 경우 사용한다 (Jespersen 1949). 이처럼 핵명사 ‘남자’에 대하여 영어에서는 정관사 ‘a’를 사용하여 화자에게 신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핵명사인 ‘남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수식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나타난 수식어가 영어에서 생략되는 경우는 화자가 이미 수식

41) 국어국립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바람.

하는 대상을 언급하여 청자가 알고 있다고 여길 경우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수식어를 생략하여 나타냈다.



VI. 결론

본 연구는 한영 병렬언어자료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명사 수식어의 번역유형과 요인을 다양한 예를 통해 Givón의 기능문법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 수식어의 종류와 어순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명사 수식어를 품사별로 나누어 기능적, 의미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 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한영 병렬언어자료 분석의 결과 첫째, 영어에서는 앞으로 소개할 내용을 설명 할 때는 ‘this’로 이미 언급된 내용을 나타낼 때는 ‘the’로 화자와 지시체인 핵명사의 거리가 먼 경우 ‘that’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수식어가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어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만 영어에서는 모두 하나의 형태로 번역되었다. 둘째, 명사 관형사형의 경우 관형격 조사 ‘-의’의 결합유무에 따라 번역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서술어 관형사형은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번역유형이 달라졌다.

4장에서는 한영 병렬언어자료 분석에서 명사 수식어들이 핵명사를 중심으로 둘 또는 셋 이상 겹쳐서 나타날 때, 첫째, 명사전 수식어들은 Givón의 명사 구내의 엄격한 어순과과 형용사수식 어순에 따라 수식어들의 어순이 달라져서 번역되었으며 둘째, 명사후 수식어들은 핵명사의 유생성과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의 유무에 따라 어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셋째, 명사전·후 수식어들은 핵명사와 가까이 있는 수식어부터 번역되면서 어순의 변화가 나타났다.

5장에서는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한국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영어에서 추가되는 수식어들과 한국어에서는 수식어로 발견되었으나 영어에서 생략되어 번역된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한국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영어에서 추가되는 수식어들은 한정사인 관사, 소유격 대명사, 지시사

그리고 양화사가 발견되었으며 수식어가 구정보일 경우는 정관사가 신정보일 경우는 부정관사가 나타났으며, 인간 행위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소유 대명사를, 장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양화사를, 특정 대상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시사를 사용하였다. 둘째, 명사 수식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이전에 언급되었거나 불필요할 경우 또는 문맥의 흐름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영어에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되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소설이라는 제한된 병렬 언어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고 분석 토근의 수도 제한적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분석 자료를 의미와 담화로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언어학과 교육학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영어의 명사 수식어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의미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번역 코퍼스 분석을 바탕으로 담화의 영역에서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언어학적인 면에서 본 연구는 두 언어의 명사 수식어를 의미와 담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정리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가져본다.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두 언어의 명사 수식어와 어순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외국어 습득 시 모국어 간섭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의 비교연구도 진행하여 장르별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더 많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명사 수식어의 기능을 이해해간다면 두 언어의 수식어 번역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보다 일반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분석자료 목록

한영 병렬언어자료

1. 김영하. (2006). 「빛의 제국」. 서울: 문학동네.
(역) Kim, C. Y. (2010).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New York: Houghton Mifflin.
2. 신경숙. (2010).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서울: 문학동네.
(역) Kim, S. R. (2013). *I'll Be Right There*. Seoul: Daesan Foundation.
3. 한강. (2016). 「흰」. 서울: 문학동네.
(역) Smith, D. (2017). *The White Book*. New York: Gran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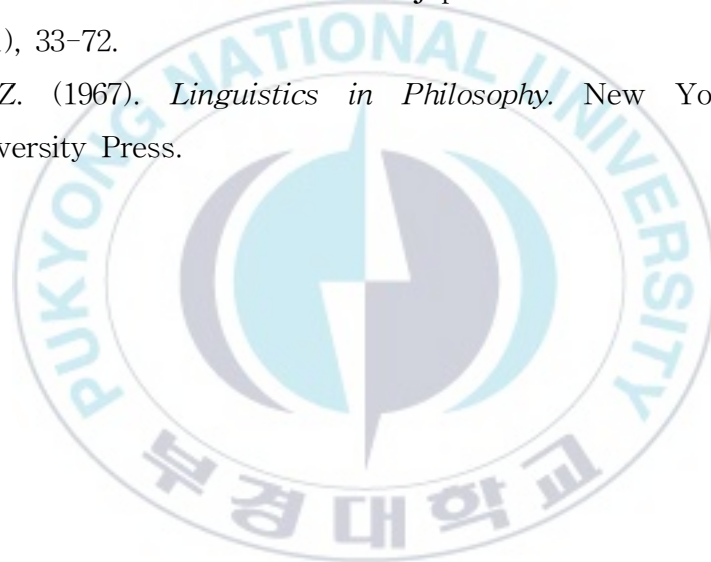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봉모. (1992). 「국어 매김말의 문법」. 서울: 태학사.
- 김은일. (2016). 사건의 국면에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의 부호화 체계 비교. 「언어과학」 23(2), 21-39.
- 김혜영. (2011). 명사 수식 구문의 번역 글쓰기 문제. 「돈암어문학」 24, 89-120.
- 남기심. (2005). 「현대국어통사론」. 서울: 태학사.
- 남기심, 고영근. (2014).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박이정.
- 민경모. (2011). 지시사 수식 명사구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하여. 「국어학」 60, 123-145.
- 서정수. (1994). 「국어 문법」. 서울: 뿌리 깊은 나무.
- 양용준. (2013). 영어와 한국어의 한정사에 관한 비교 분석. 「영어영문학」 18(2), 145-65.
- 이기동. (1991). 전치사 with의 의미. 「영어영문학연구」 12, 85-110.
- _____. (2011). 영어 전치사 연구; 의미와 용법. 서울: 교문사.
- 이익섭. (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연창, 김은일. (2009). 한영 병렬언어자료에 나타난 한국어 능동문의 영어 수동문으로의 번역. 「현대영어문학」 27(4), 255-274.
- 제경미. (2019). 한국어 관형어의 영어번역 양상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 연구」 20(1), 161-181.
- 진실로, 박은주. (2009). 언어사용역을 고려한 영한 수량표현 번역. 「번역학 연구」 10(1), 171-197.
- 최진실. (2010). 영한 번역에서의 텍스트 구조와 접속 부가어. 「번역학연구」 22, 141-158.
- 최현배. (1937, 1987).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허웅. (1983). 「국어학」. 서울: 샘 문화사.
- 홍용철. (2010). 한국어 명사 외곽 수식어들의 어순과 명사구 구조. 「생성문법연구」 20(1), 27-50.
- 홍순성. (1981).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8, 1-19.
- Berk, L. (1999). *English Syntax: From Word to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iber, D., S. Conrad and G. Leech.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Bloomfield, L. (1968).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Catford, J. 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hristophersen, P. (1939). *The Article: A Study of Their Theory and Use in English*. Copenhagen: Munksgaard.
- Clark, H and E. V. Clark.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Jovanovich.
- Crystal, D. (1982). *Linguistics*. New York: Penguin Books.
- Curme, G. O. (1935). *Parts of Speech and Accidence*.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 _____. (1935). *Syntax*.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 Declerck, R. (1990). *A Comprehensive Descriptive Grammar of English*. Tokyo: Kaitakusha.
- Dixon, R. (2005). *A Semantic Approach to English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ley, W. (1980). Toward a Universal Typology of the Noun Phrase. *Studies in Language* 4, 171-199.
- Givón, T. (1983).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n Introduction. In Givón, T.(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Amsterdam: John Benjamins. 313-341.

- _____.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_____.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 House, H. C. and S. E. Harman. (1950). *Descriptive English Gramma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Huddleston, R. and G.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A Student's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kegami, Y. (1991). 'Do-Language' and 'Become-Language': Two Contrasting Types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In Ikegami, Y. (ed.), *The Empire of Signs: Semiotic Essay on Japanese Culture*. Amsterdam: John Benjamins.
- Jespersen, O. (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VII. Copenhagen: Munksaard.
- _____.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Allen and Unwin.
- Lakoff, R. (1974). Remarks on 'this' and 'that'. *Proceedings & Chicago Linguistic Society* 10, 345-356.
- Nida, 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Pinker, S. (1994). *The Language Instinct*.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 Pyles, T and J. Algeo. (1970). *English: An Introduction to Language*. Harcourt: Brace & World, Inc.
- Poutsma, H. (1926).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Pt II.

- Groningen: P. Noordhoof.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_____.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wan, M. (2005). *Practical English Us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kara, N. (2012). The Weight of Head Nouns in Noun-Modifying Construction in Conversational Japanese. *Studies in Language* 36(1), 33-72.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감사의 글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영어라는 학문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정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첫 수업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분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석사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훌륭한 가르침으로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도 교수이신 김 은일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됨을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논문을 읽어주시고 조언 해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꼼꼼하게 논문을 점검 해주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신 오 준일 교수님, 생소했던 화용/담화를 쉽게 가르쳐주신 한 지원 교수님, 바쁜 와중에 멀리서 와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김 양희 교수님, 밝은 미소와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신 김 소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항상 믿고 격려해주신 엄마와 든든한 버팀목인 딸 바보 아빠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챙겨주고 응원해주고 공부하는 아내를 위해 집안일이며 육아를 도맡아해 준 신랑과 엄마가 최고라며 꼭 박사 되라며 응원해준 비타민 같은 딸, 아영이 고마워.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멀리서 항상 기도해주시고 믿고 지켜봐주신 시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과 응원으로 박사과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으로만 시작했던 공부였기에 어렵거나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신 대학원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육아로 공부 흐름이 끊겨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진심어린 조언과 응원 분들께 모두 고마워요. 가진 거에 감사하며 이룬 거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며

항상 노력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길 기도
하며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